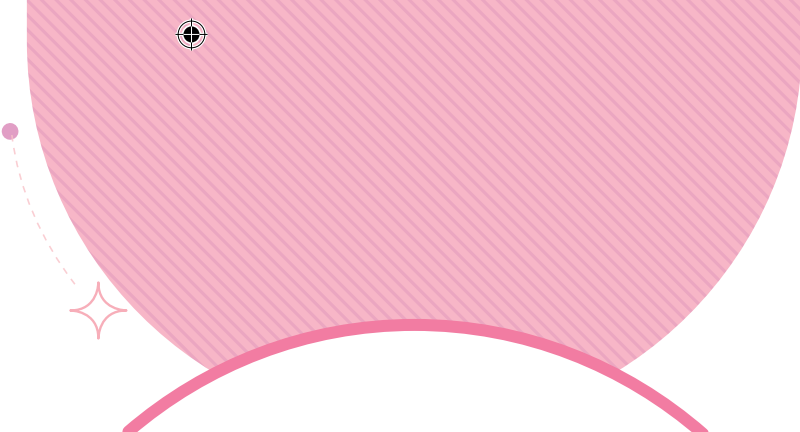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29

1 마음을 비추는 글



문학과 성장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① 02 직접적 제시 03 ⑤ 04 성장

- 01 발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난다.
- 02 직접적 제시는 작가나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특징, 생각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듯이 말하는 방식을 말한다.
- 03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 04 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이 다양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한다.

학습목

009~021쪽

- 010쪽 발단 소주제: 배수구
 - ① 화장실, 세면대
- 014쪽 전개 소주제: 돈
 - ① 얼굴, 학교
 - ② 머리카락, 출장비
- 017쪽 위기 소주제: 아저씨
 - ① 관리 사무소
 - ② 외숙모, 돈
- 020쪽 절정 소주제: 자전거
 - ① 동영상, 멍키 스패너
 - ② 엄마
- 021쪽 결말 소주제: 제자리
 - ① 한아
 - ② 아기, 전구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21쪽

- 009쪽 (1) 군소리 (2) 거들떠보다
- 012쪽 (1) 수작 (2) 야단
- 013쪽 (1) 형편 (2) 출장비 (3) 설비
- 017쪽 (1) 조임쇠 (2) 오기
- 019쪽 (1) × (2) ○
- 020쪽 (1) × (2) ○
- 021쪽 (1) 도무지 (2) 뻘뻘 (3) 쿡쿡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021쪽

- 009쪽 01 ③ 02 흑
- 010쪽 03 ④ 04 ② 05 ①
- 011쪽 06 ③ 07 ② 08 ③
- 012쪽 09 ① 10 ⑤ 11 좀 지나치다
- 013쪽 12 ① 13 ③
- 014쪽 14 ⑤ 15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16 ②
- 015쪽 17 ② 18 ⑤ 19 ②
- 016쪽 20 ④ 21 ③ 22 ④
- 017쪽 23 자전거 가게 24 ③ 25 ③
- 018쪽 26 ④ 27 ① 28 ③
- 019쪽 29 ② 30 (화장실) 전구 31 ⑤
- 020쪽 32 ③ 33 ④
- 021쪽 34 ⑤ 35 ④

- 01 발단 2에서 '나'는 자신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한아의 말을 듣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다.
- 02 발단 2에 제시된 '흑'은 짐스러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동생을 귀찮아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 준다.
- 03 발단 4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단계로, 인물, 사건의 실마리, 배경 등이 제시된다.

오답풀이 ①은 전개, ②는 결말, ③은 절정, ⑤는 위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04 엄마가 집을 비운 동안 '나'와 한아에게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 배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05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타산지석: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봉우유산: 벼와 밭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이른다.

⑤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 06 ①은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데다가 세면대 배수구까지 막힌 문제 상황을 가리킨다.
- 07 전개 1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까닭을 생각해 보다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은 일을 떠올리고 있다.
- 08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동생이 눈에 띄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생의 머리를 길게 하고, 관리를 해 주었다.
- 09 전개 2에서 '나'는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여자에처럼 되고 싶어 머리를 잘랐다고 하였다.

- 10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른 자신을 보고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 심장이 찢리는 기분을 느꼈다.
- 11 '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을 볼 때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12 이 작품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나'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등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13 '나'는 한성 설비에 일을 맡기는 비용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본 출장비 5만 원과 수리비가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다.
- 14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세면대를 고치려면 한성 설비나 관리 사무소에 가 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 15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이다.
- 16 '나'는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을 잘하면 세면대를 봐 줄지도 모른다는 만년 철물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고 있다.
- 17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집에 어른이 안 계시냐고 묻자 자신과 한아만 있는 집에 아저씨를 들어오게 할 수 없어서 세면대가 고장 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
- 오답풀이** ① '나'는 만년 철물점에서 나온 뒤 혼자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고 있다.
 ③ '나'는 집에 무엇이 고장 났는지,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묻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④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나'는 처음에는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문제를 사실대로 말하되 약간만 가여운 척을 하려고 했었다.
 ⑤ 관리 사무소 아저씨는 집에 뭐가 고장 났다는 '나'의 말에 "몇 동 몇 호인데?"라고 질문하고 있다.
- 18 '나'는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세면대를 고치려면 한아와 자신밖에 없는 집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밖에 엄마가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 19 엄마는 어디 가서 엄마가 집에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라도 이동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 20 소풍이는 외숙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별명이다.
- 21 '나'는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외숙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외숙모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다.
- 22 '조급하다'는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는 의미의 말로 '나'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신중하다'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의미로 엄마가 주고 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에서 신중한 모습이 나타난다.
 ②, ⑤ '의젓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는 의미이다. 외숙모의 힘든 모습을 보고 미안해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도와

-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에서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③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걷는 것과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아끼는 데에서 알뜰한 모습이 나타난다.
- 23 절정 1에서 '나'와 한아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가게에 갔음을 알 수 있다.
- 24 '나'는 자전거 가게를 찾아가 사장님의 공구 상자에서 찾던 공구를 찾아 사장님께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25 한아는 아직 어린 동생으로 언니인 '나'를 믿고 의지할 뿐, 스스로 세면대를 고치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26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스무 개 정도나 찾아보며 확실한 방법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27 '나'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처음 발견한 뜻밖의 공간을 보고 비밀 동굴을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 28 ㉠, ㉡, ㉣, ㉤는 배수관이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게 만든 원인인 머리카락을 가리키고, ㉢는 한아를 가리킨다.
- 29 '나'와 한아는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배수관이 잘 고쳐졌는지 조마조마해하고 있다.
- 30 '나'와 한아는 '나머지 문제'인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전구'를 사러 만년 철물점에 들르고 있다.
- 31 절정 5의 내용으로 보아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아직은 건강하여 철물점을 운영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엄마는 한아가 유리컵을 쓰다가 깨뜨리면 다친다고 유리컵을 쓰지 못하게 했었다.
- 33 ㉤은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나'의 속 깊음이 드러나는 말이다.
- 34 '나'는 처음에는 엄마가 돌아오려면 '4일이야' 남았다며 엄마가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덤덤하게 엄마가 돌아올 날짜를 세고 있다.
- 35 '멍키 스페너'는 배수구 문제를 해결하느라 '나'가 처음 사용해 본 물건으로 평소 잘 알고 있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① 멍키 스페너는 '나'가 직접 세면대 배수관을 고칠 때 사용한 물건으로, 멍키 스페너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에서 '나'가 성취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가 엄마에게 사고 싶은 물건이 만 오천 원이라고 한 것과, 철물점에서 할머니에게 가격을 물어본 초록색 손잡이 스페너 가격이 만 오천 원인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멍키 스페너를 꼭 쥐었을 때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스페너를 손에 쥐면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활동

023~028쪽

- 탐구** 023쪽 1 배수구, 엄마
024쪽 1 자전거
026쪽 3 전구
적용 028쪽 1 의지

학습목

023~028쪽

- 026쪽 ① 성장
② 내면화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3~028쪽

- 023쪽 01 ⑤ 02 ⑤ 03 ④
024쪽 04 ④ 05 ③ 06 ①
025쪽 07 ④ 08 ④ 09 ④
026쪽 10 ④ 11 ④ 12 유리컵
027쪽 13 ② 14 ③ 15 ④
028쪽 16 ④ 17 ④ 18 나무

- 01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성 설비에 일을 맡길 생각도 해 보고, 관리 사무소에도 찾아갔으나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 02 '나'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다.
- 03 '나'는 관리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자신과 한아만 있는 집에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되돌아 나왔다.
- 04 '나'는 한아에게 자신이 막힌 세면대 배수관을 뚫을 것이라고 한 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을 찾아본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찾아낸다.
- 05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고치려면 출장비와 수리비가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성 설비로는 가지 않는다.
- 06 막힌 배수구를 고치고 물이 잘 내려가는 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한 뒤, '나'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 07 '나'가 엄마의 허락을 받아 돈을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모습은 세면대를 고친 후 변화된 모습이다.

- 08 '나'는 세면대를 고치면서 한아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 09 '멍키 스페너'는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 성취감을 주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학업적 의지를 다지게 만든 도구는 아니다.
- 10 '나'는 세면대를 고치기 전에는 만년 철물점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세면대를 고친 후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 만년 철물점이 오래오래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게 된다.
- 11 '나'가 세면대를 고치는 동안 한아는 냄새가 나는 화장실에서 함께 있으며 핸드폰 플래시를 들고 도와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한아가 의리가 있고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12 엄마는 깨뜨리면 다친다며 한아에게 유리컵을 주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한아의 도움을 받아 세면대를 고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한아에게 준다. 이는 한아도 유리컵에 주스를 마시는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유리컵'은 한아를 보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엄마와 달리 이전까지 한아를 어리게만 보던 '나'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13 이 글은 익숙하지 않고 힘든 일도 적극적인 자세와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 14 (4)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으나, 이 소설 속 '나'처럼 "한번 해 보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15 성장 소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이 다양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성장 소설 읽기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
- 16 이 시의 2연을 보면 기대는 곳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다고 하였다.
- 17 이 시의 '기대다'라는 시어는 다른 존재에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18 이 시에서는 공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무의 속성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압축파일

030쪽

- ① 전등불 ② 세면대 ③ 할머니 ④ 관리 ⑤ 동영상
⑥ 만년 ⑦ 한성 설비 ⑧ 멍키 스페너 ⑨ 자신감

-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성현, 민아 06 ②
07 ③ 08 ① 09 ⑤

01 이 글에서 주인공 '나'가 처한 문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므로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인공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 이 글은 소설로 소설 속 '나'는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다.

③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상황과 사건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아의 말이나 '나'와 친구의 대화 등 인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④ 학생인 '나'가 어린 동생과 둘만 집에 있을 때 화장실 전등불이 고장 나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02 (다)에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친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뒤 머리를 길렀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뽕뽕 자르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화장실 전등불이 고장 난 데 이어 세면대가 막혀 물이 안 내려가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나'는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자신과 한아가 긴 머리를 세면대에 감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가)에서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네!'라고 한 것에서 엄마가 집을 비웠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엄마가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주고 간 돈을 보며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03 ㉠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금상첨화(錦上添花)'는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팔자가 늘어졌다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 따위가 없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는 의미로, '나'가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나'는 엄마가 돌아와야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를 고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4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머릿속에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쿵쿵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머리를 짧게 잘랐다.

⑤ ㉤은 머리를 짧게 자른 '나'를 본 친구들의 반응으로, 이 말에 상처 받은 나는 그 이후로 머리를 길게 기르게 되었다.

04 한성 설비 사장님이 기술자로서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고 수리비까지 따로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아니라 만년 철물점 할머니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을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엄마가 집을 비우며 '나'에게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서 주지 말고, 누군지 묻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수리비가 비싸 봤자 얼마나 비싸겠냐고 생각하다, 한성 설비 사장님은 기본 출장비만 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이로 보아 '나'는 처음에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세면대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출장비와 수리비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찌푸리는 '나'를 보며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한다.

05 **서술형**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상의를 하였고, 한성 설비에 수리를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성 설비에 맡기려면 가진 돈을 써야 해서 한성 설비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려 하였다.

06 (라)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들렀다고 했으므로 주말이 아니라 평일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한성 설비의 출장비와 수리비 이야기를 듣고 피 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기에 나온 반응이다.

④, ⑤ '나'는 평소에 관리 사무소의 방송을 들어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관리 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무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07 (나)에서 '나'는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세면대 때문에 걱정하는 한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직접 세면대를 고치겠다고 말한 뒤 '한번 해 보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나)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대한 동영상은 스무 개쯤 찾아보았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나'와 한아는 세면대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안도감과 성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 '나'는 동영상을 보고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는 멍키스패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 가서 멍키스패너를 빌리고 있다.

08 '나'는 멍키스패너를 사용하여 세면대를 고친 후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있다.

09 이 글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교훈을 얻은 모습으로는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진술한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34쪽

01 (1) ○ (2) × (3) ○ 02 ㉠-㉡-㉢-㉣-㉤ 03 자아

- 01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갈래에는 수필, 편지, 일기 등이 있다. (2)는 일기에 대한 설명이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 02 <보기>의 과정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물론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보여 준다.
- 03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서를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글쓰기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도와준다.

활동

035~046쪽

탐구 044쪽 4 탐차, 지도

학습곡

035~046쪽

- 045쪽 ① 글감, 구체화, 경험
② 성찰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5~046쪽

- 035쪽 01 ② 02 ④ 03 ⑤
036쪽 04 ④ 05 글감 06 ⑤
037쪽 07 ③ 08 (1) 어느 초여름 비 오는 날 (2) 아빠가 일하는 곳 09 ③
038쪽 10 ④ 11 마인드맵 활용하기 12 ④
039쪽 13 ② 14 ⑤ 15 ③
040쪽 16 ① 17 끝 18 ③
041쪽 19 ③ 20 ⑤
042쪽 21 ③ 22 ③ 23 산타
043쪽 24 ② 25 ④ 26 ⑤
044쪽 27 ③ 28 ⑤ 29 ⑤
045쪽 30 ③ 31 ③ 32 ⑤
046쪽 33 ⑤ 34 ① 35 ⑤

- 0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글감을 정한다.

오답풀이 ①, ③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결정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④ 글로 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02 지원은 자신이 떠올린 경험 중에서 '비 오는 날,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을 글감으로 정하고 있다.

- 03 비 오는 날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경험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글로 쓰기로 정한다.

- 04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경험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05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은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경험인지, 진솔하게 정서를 표현할 만한 경험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06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자신의 삶과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⑤는 독서 일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 07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표현해야 한다.

- 08 지원은 어느 초여름 비 오는 날,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있었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

- 09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의 하루를 지켜보면서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에 택배 회사의 경영 전략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감을 선택한 후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감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

- 11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를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하므로,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해 준다.

- 12 '묻고 답하기'는 육하원칙에 따라 경험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글의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④ 대신에 추가로 '왜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 13 지원이 개요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으므로 삭제한 내용도 없다.

오답풀이 ① 중간 부분에 아빠가 배달한 물건의 젖은 운송장을 내 교복에 대고 말리며 뽀뽀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③ 중간 부분에서 아빠의 하루를 함께 했던 경험,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과 그때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겠다고 하였다.

- ④ 제목,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였다.
 ⑤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려고 미리 계획하였다.

14 지원은 글의 소재를 나타낸 ‘택배와 아빠’라는 제목보다는 글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15 지원은 끝 부분에 누군가 기다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아빠가 자랑스러웠다는 내용을 적으며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16 경험을 구체화하여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17 ‘나’는 승주의 행동을 보고 깨달은 것과 자신도 신문을 모으기 시작한 경험을 글의 끝 부분에 넣기로 개요를 짰다.

18 사건을 무작위로 나열하게 되면 사건 간의 관계나 그 사건을 왜 말하는 것인지 등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19 아빠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드는 것이 물건을 배달하는 데에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며 겨우 얼굴만 가리는 모자를 쓴 채로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나’가 아빠를 돕기 위해 운송장의 열두 자리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나’의 아빠는 택배원으로 물건을 받을 주소지까지 운전을 하고 물건을 직접 들고 배송한다.
 ⑤ 비 오는 어느 초여름 날 아빠의 하루를 직접 본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20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아빠에게 우산을 건네려고 ‘아빠, 우산!’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21 이 글은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것인 논리적인 성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글쓴이가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하루 동안 지켜본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고백적으로 서술한 수필이다.
 ④ ‘회고적’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으로, 이 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회고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주관적인 글이다.

22 [A]에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택배 물건에 대해 모두 기억하는 아빠에게 느끼는 경이로움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ㄴ). 또한 아빠와 ‘나’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아빠와 나눈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A]는 아빠와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ㄴ. [A]에서는 ‘나’가 아빠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나 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23 ‘아빠는 오늘도 산타처럼 탐차를 타고, 자신에게 보낸 혹은 누군가로부터 온 물건을 배달한다.’에서 아빠를 ‘산타’에 비유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을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4 ‘나’는 승주를 도와 할아버지께 폐지를 모아 드리는 일을 한 뒤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25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에서는 대화를 직접 인용하거나(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ㄷ) 등의 방법으로 상황이나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ㄱ. 감정을 최소한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ㄷ.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글에서는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6 ‘나’는 할아버지께 받은 돈을 소중히 생각하는 승주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27 <보기>에서는 운송장을 ‘저마다 개성 있는 필체로 적힌 단 하나뿐인 지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아빠가 매일 누군가의 산타가 되어 준다고 하여 아빠를 산타에 빗대고 있다.
 ② ‘루돌프 대신 탐차를 타고’에서 누군가에게 산타가 되어 주는 아빠가 타는 탐차를 루돌프에 빗대고 있다.
 ④ ‘자신에게 보낸 혹은 누군가로부터 온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아빠가 배달할 물건을 선물에 빗대고 있다.
 ⑤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이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는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에 빗대고 있다.

28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고쳐 씌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와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⑤는 ‘200장’이라는 표현에서 택배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 수 있고, ‘선물 같은 하루’에서 택배원을 대하는 지원의 마음이 느껴진다.

30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의 ‘고쳐쓰기’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31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는 일은 이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 혹은 이를 근거로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적합하다.

32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33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소식을 전하거나 자신의 안부와 일상, 상대방을 향한 마음 등을 담아 부치는 글이다.

오답 풀이 ㄱ. 편지는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쓰는 글이다.
 ㄴ.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적는 개인적인 기록은 일기이다.

34 편지글에서 '아빠의 그림은 용감한 우리 태현이와 태성이를 그린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현과 태성은 형제임을 알 수 있다.

35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들 태현을 향한 아빠 이중섭의 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편지이다.

* 압축 파일

048쪽

- ① 글감 ② 구체화 ③ 개요 ④ 경험 ⑤ 산타 ⑥ 눈빛
⑦ 택배원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49~050쪽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친한 친구
와 다투었다가 화해한 일 / 여름 방학 때 바닷가로 가족 여행을 간
일 / 초등학교 졸업식 날 축하받은 일 등 07 ⑤ 08 ④

01 '나'는 (가)에서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속상해했고, (나)에서 택배에 관한 것을 대부분 기억하는 아빠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라)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글에 아빠가 물건을 빨리 전해 주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이 개요의 중간 부분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 통일성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개요와 이 글에서는 아빠의 하루를 지켜보고 아빠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택배와 아빠'라는 제목에는 이 글에 나타난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타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로 제목을 수정한 점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와 (다)에서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물건의 상태를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을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려했을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⑤ (라)에서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개요의 끝 부분에 제시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려했을 내용으로 볼 수 있다.

03 이 글은 아빠를 향한 애정이 드러나는 수필로, '나'는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날 이후 아빠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빠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아빠를 '산타'에 비유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택배 일의 가치를 참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가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날이 어떤 날인지 제시한 부분이다.

②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③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④ 아빠가 비를 맞으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날씨를 묘사한 부분으로, 아빠를 걱정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난다.

05 <보기>에서는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아빠는 '산타',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운송장은 '저마다 개성 있는 필체로 적힌 단 하나뿐인 지도'로, 배달하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아빠를 '선물을 받지 못해 시무룩한 아이들의 표정을 견딜 수 없는 산타'에 빗대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아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 씌으로써 아빠가 택배를 배달하는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06 【서술형】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감동적인 일 등을 떠올려 본다.

07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은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로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8 <보기>는 아들과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아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함과 아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받는 이에게 급한 소식을 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아빠가 보내 준 그림을 보고 ~ 아빠는 정말 정말 기쁘다.'라고 한 것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② '정말 정말 기쁘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등에서 글쓴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와 같은 표현이나 두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낸 것에 아들을 향한 애뜻함과 사랑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⑤ '그 후 건강했니?'와 같이 안부를 묻고, 학교에서 재미있었다고 생각한 일과 제일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을 써서 보내 달라고 하며 아들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51~053쪽

-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명키 스매너 06 ⑤
07 ③ 08 ⑤ 09 ①

- 01 이 글은 외부 인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나'를 보여 주는 성장 소설이다.
- 02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러 관리 사무소를 찾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다시 나오고 있다.
- 03 엄마는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누가 와도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집에 엄마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나'에게 당부하였다. 이것이 생각난 '나'는 집에 어른이 안 계시느냐고 묻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막힌 세면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엄마가 밖에 계신다는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 04 '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정신적으로 성숙하였다. 남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고 뿌듯해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05 **서술형** '멍키 스페너'는 '나'가 막힌 세면대 배수구를 스스로 뚫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존재이자 '나'의 힘을 더 커지게 한 매개물이다.
- 06 이 글에서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난다.
 ② '나'가 비가 오던 어느 초여름 날,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③ (가)에는 우산도 쓰지 않고 얼굴만 가리는 모자를 쓴 채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속상해했던 '나'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④ (다)에서 아빠는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받는 이에게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다해 물건을 배달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07 ㉠과 ㉡에는 아빠가 수많은 택배 물건에 관한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나'가 느끼는 존경심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 아빠가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다.
 ㉣ '나'의 동생들이 산타가 선물을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다. 아빠는 자신이 배달할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아이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 08 이 글에서는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였는데 이 표현을 좀 더 확장하여 아빠가 택배 일을 하는 과정을 산타가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비유하여 나타내면 물건을 배달하는 일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 09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글쓰이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건 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2 다채로운 단어



단어의 짜임과 새말

* 활동

056~068쪽

- 탐구** 057쪽 1 김밥, 시다
 058쪽 2 바람, 예, 물
 060쪽 3 접사, 어근
 061쪽 4 먹, 돌아가다
 063쪽 5 꽃, 비

학습곡

056~068쪽

- 056쪽 ① 문장, 뜻
 058쪽 ② 의미, 문법
 059쪽 ① 호박, 애-
 ② 어근, 접사
 064쪽 ① 외래어
 ② 합성, 파생
 067쪽 ③ 짜임, 의미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6~068쪽

- 056쪽 01 ④ 02 ⑤ 03 ④
 057쪽 04 친구 / 가 / 의자 / 예 / 앉았다 05 ② 06 ⑤
 07 (1) 먹-, -었-, -다 (2) 3개
 058쪽 08 자립성의 유무, 실질적 의미의 유무 09 ③ 10 ③
 11 ③
 059쪽 12 (1) 어근 (2) 접사 13 단일어 14 ④ 15 ⑤
 060쪽 16 (1) ㄴ (2) ㄷ, ㄹ (3) ㄱ 17 ② 18 ⑤
 061쪽 19 ① 20 ② 21 ⑤
 062쪽 22 ① 23 ② 24 ④
 063쪽 25 ① 26 ③ 27 ①
 064쪽 28 ① 29 ⑤ 30 ③
 065쪽 31 ③ 32 ② 33 ③
 066쪽 34 ⑤ 35 ⑤ 36 ②
 067쪽 37 ③ 38 ④
 068쪽 39 (1) 휘감다, 덧버선 (2) 사장님, 가위질 40 ④

- 0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은 형태소이다.
- 02 단어는 '저, 건물, 매우'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조사 '은'과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높-'은 단어가 아니라 형태소이다.

03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언니 / 가 / 밥 / 을 / 먹는다’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형태소로 더 쪼갤 수 있는 말은 ‘먹는다’로 ‘먹- / -는- / -다’와 같이 나눌 수 있다.

04 문장을 단어로 나눌 때에는 먼저 조사부터 찾으면 쉽다. 그다음 남은 말을 나누었을 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게 되면 ‘친구 / 가 / 의사 / 에 / 앉- / -았- / -다’로 나눌 수 있다.

05 ‘꽃과일, 매우, ‘시다’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인 조사 ‘이’는 단어에 해당한다. ‘꽃-’, ‘시-’, ‘-다’는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치솟다’는 형태소 ‘치- / 솟- /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07 ‘먹었다’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 ‘먹- / -었- / -다’이므로 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08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09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10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친구 / 와 / 함께 / 걷- / -고 / 싶- / -다’이다. 여기에서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는 ‘와, 걷-, -고, 싶-, -다’의 5개이다.

11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형 / 이 / 마당 / 에서 / 잔디 / 를 / 깎- / -다’이다. 여기에서 형식 형태소는 ‘이’, ‘에서’, ‘를’, ‘-다’로 4개이다. ‘깎-’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자립 형태소는 ‘형’, ‘마당’, ‘잔디’로 3개이다.
② 실질 형태소는 ‘형’, ‘마당’, ‘잔디’, ‘깎-’으로 4개이다.
④ 의존 형태소는 ‘이’, ‘에서’, ‘를’, ‘깎-’, ‘-다’로 5개이다.
⑤ <보기>의 문장은 ‘형 / 이 / 마당 / 에서 / 잔디 / 를 / 깎다’와 같이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12 단어의 짜임을 살펴보면 단어는 어근으로만 단어를 이루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13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 즉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뜻한다. 쪼갠 때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라고 할 수 있다.

14 ‘밤나무’는 어근 ‘밤’과 어근 ‘나무’가 결합한 복합어이자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눈사람’은 어근 ‘눈’과 어근 ‘사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새파랗다’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와 어근 ‘파랗다’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속한다.

② ‘비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근 ‘비’와 어근 ‘웃’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나무꾼’은 어근 ‘나무’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나비’를 ‘나’와 ‘비’로 쪼개면 원래의 단어가 가진 뜻을 알 수 없으므로 쪼갤 수 없다. 그러므로 ‘나비’는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임을 알 수 있다.

15 ‘떡국’은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을 말하는데, ‘떡’과 ‘국’으로 나누어도 본래의 뜻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떡국’은 어근 ‘떡’과 어근 ‘국’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6 ‘ㄴ, 구름’은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 버리므로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ㄴ, 햇빛(햇 + 빛)’과 ‘ㄴ, 미끄럼틀(미끄럼 + 틀)’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ㄴ, 날개(날- + -개)’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17 ‘햇사과’는 접사 ‘햇-’과 어근 ‘사과’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나머지 단어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어근 ‘손’과 어근 ‘거울’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어근 ‘돌’과 어근 ‘다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어근 ‘물’과 어근 ‘길레’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어근 ‘초가’와 어근 ‘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8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9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치뜨다’는 접사 ‘치-’와 어근 ‘뜨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뜨다’는 다시 형태소 ‘뜨-’와 ‘-다’로 나눌 수 있다.

20 ‘샘물’은 어근 ‘샘’과 어근 ‘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보기>에 쓰인 단어는 ‘보름달(보름 + 달)’, ‘샘물(샘 + 물)’, ‘꽃집(꽃 + 집)’, ‘나팔꽃(나팔 + 꽃)’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21 단어를 검색했을 때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면 한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건너오르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을 뿐더러 실생활에서도 쓰이지 않는 어색한 말이다.

22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앞이나 뒤에 선지의 접두사나 접미사를 하나씩 차례로 붙여 보고 말이 되는지 확인한다. <보기>의 어근에 공통으로 붙을 수 있는 접사는 접두사 ‘맨-’으로,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한다.

23 ‘잔상’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나머지는 <보기>에 제시된 접두사 ‘잔-’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24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접사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지닌 접두사 ‘들-’이다.

오답 풀이

- ① '진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참-'이다.
 ②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못-'이다.
 ③ '질이 떨어지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개-'이다.
 ⑤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들-'이다. <보기>에 사용된 접두사와 모양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⑤의 접두사가 사용된 단어로는 '들볶다', '들쭉시다'가 있다.
- 25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헛바람'은 파생어이다.
- 26 '개꿈'은 '특별한 내용도 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이라는 의미로, 이때 '개-'는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27 '한-'은 '큰',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더위'와 결합하여 '한더위'가 되면 '한창 심한 더위'라는 뜻을 나타낸다.
- 28 새말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나,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포함된다.
- 29 '웃프다'의 '웃'은 '웃기다'에서, '프다'는 '슬프다'에서 따온 것이므로 '웃프다'는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만든 새말이라고 할 수 있다.
- 30 '호캥스'는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한 새말이고, 나머지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 31 '노래방'은 어근 '노래'와 어근 '방'이 결합한 합성어로, 방음이 된 방에서 가사가 화면에 나타나는 음악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장치를 해 놓은 곳을 의미한다.
- 32 '친추'는 '친구'와 '추가'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로, SNS나 게임에서 친구를 추가할 때 쓰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채팅방'은 어근 '채팅'과 어근 '방'이 결합된 것으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③ '누리꾼'은 어근 '누리'에 접사 '-꾼'이 결합된 것으로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④ '와이파이(Wi-Fi)'는 무선 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하여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하는데,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새말이다.
 ⑤ '네티켓'은 '네트워크'의 '네'와 '에티켓'의 '티켓'을 따서 만든 새말이다.
- 33 새말을 재미 위주로 마구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해치고 나아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34 '오픈 스페이스'는 열려 있다는 뜻의 '오픈(Open)'과 공간이라는 뜻의 '스페이스(Space)'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보기>의 뜻으로 쓰인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이 말을 '열린 심터'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35 영어 등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뜻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어로 된 새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36 국립 국어원에서 '가든 파티'는 '마당 잔치' 혹은 '뜰 잔치'로 바꾸었다.
- 37 '멋글씨'는 어근 '멋'과 어근 '글씨'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38 외국어로 된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을 때에는 발음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 뜻을 살릴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 39 접두 파생어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것이고 접미 파생어는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보기 2>의 단어를 먼저 어근과 접사로 나눈 후에 판단한다.
- 40 <보기>의 '책가방(책 + 가방)'과 '반려견(반려 + 견)'은 합성어이고, '날개(날- + -개)'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파생어는 1개, 합성어는 2개이다.

*** 압축 파일**

070쪽

- ① 조사 ② 뜻 ③ 의존 ④ 형식 ⑤ 의미 ⑥ 어근
 ⑦ 어근 ⑧ 접사 ⑨ 순화 ⑩ 합성 ⑪ 파생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1~072쪽

- 01 ① 02 (1) 동생, 먹다 (2) 동생, 이, 먹-, -다 03 ④
 04 ① 05 ① 06 ② 07 ④ 08 ③ 0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⑤

- 01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나, 모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다. '맑다'의 '맑-'처럼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 02 **서술형**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눌 때에는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단어를 다시 형태소로 나눌 때에는 단어의 뜻이 유지되는지 판단한다.
- 03 '높-'은 홀로 쓰일 수 없고, '-다'와 같은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 04 '터'는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즉, '놀이터'는 어근 '놀이'와 어근 '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② '멋쟁이'에 사용된 접미사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한다.
 ③ '새벽께'에 사용된 접미사 '-께'는 '그때 또는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한다.
 ④ '늦더위'에 사용된 접두사 '늦-'은 '늦은'의 뜻을 더한다.
 ⑤ '장난꾸러기'에 사용된 접미사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한다.
- 05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사람들 / 은 / 노래 / 를 / 듣고 / 눈물 / 을 / 닦았다'가 된다. 이를 다시 형태소로 나누면

‘사람 / -들 / 은 / 노래 / 를 / 듣- / -고 / 눈 / 물 / 을 / 닦- / -았- / -다’가 된다. 그러므로 단어는 8개이고, 형태소는 13개가 된다.

오답풀이 ② ‘사람들’은 어근 ‘사람’에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처럼 <보기>의 문장에는 파생어 1개가 쓰였다.

③ 의존 형태소는 ‘-들’, ‘은’, ‘를’, ‘듣-’, ‘-고’, ‘을’, ‘닦-’, ‘-았-’, ‘-다’의 9개이다.

④ 실질 형태소는 ‘사람’, ‘노래’, ‘듣-’, ‘눈’, ‘물’, ‘닦-’의 6개이다. ‘듣-’과 ‘닦-’처럼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형태소에 유의해야 한다.

⑤ ‘사람 / -들 / 은 / 노래 / 를 / 듣- / -고 / 눈 / 물 / 을 / 닦- / -았- /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13개이다.

06 ‘하늘’은 하나의 어근, 즉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은 단어이다.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데, ‘봄별(봄 + 별)’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것이므로 ㉠은 합성어, ‘한겨울(한- + 겨울)’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것이므로 ㉡은 파생어이다.

07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의 ‘돌다리’는 어근 ‘돌’과 어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라는 뜻으로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비옷’은 ‘비가 올 때 비에 젖지 아니하도록 덧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어근 ‘비’와 어근 ‘옷’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자 합성어이다.

③ ‘강물’은 ‘강에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어근 ‘강’과 어근 ‘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자 합성어이다.

⑤ ‘부모님’은 ‘부모’를 높여 이르는 말로 어근 ‘부모’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결합한 복합어이자 파생어이다.

08 ③에 쓰인 ‘개’는 둘 다 접사이다.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지우개’의 ‘-개’는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09 ②의 ‘치솟다’는 ‘위쪽으로 힘차게 솟다’라는 뜻으로 ‘치솟고’는 ‘치- / 솟- / -고’의 3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오답풀이 ① ‘쌔쌔’는 ‘쌔 + 솟- + -아’로 3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지만, ‘쌔’에 결합된 ‘쌔’는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다.

③ ‘뛰었다’는 ‘뛰- + -었- + -다’로 3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나, 접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었-’은 어미 ‘-다’ 앞에 붙는 선어말 어미이다.

④ ‘먹었다’는 ‘먹- + -었- + -다’로 3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나, 접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앉았다’는 ‘앉- + -았- + -다’로 3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나, 접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았-’도 ‘-었-’과 같이 선어말 어미이다.

10 <보기>의 ‘라볶이’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마기꾼’도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며, 나머지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11 ③의 ‘딸바보(딸 + 바보)’는 합성의 방법으로, ‘점메추(점심 메뉴 추천)’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오답풀이 ① 느중: 느낌 + 중대(중음) / 다꾸: 다이어리 + 꾸미기 → 둘 다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② ‘컴퓨터’와 ‘커피’는 외국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들여와 외래어로 사용하는 말이다.

④ 요리아: 요리 + 어린이 / 네티켓: 네트워크 + 에티켓 → 둘 다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⑤ 질문쟁이: 질문 + -쟁이 / 배낭족: 배낭 + -족(族) → 둘 다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12 어근 ‘안전’과 어근 ‘문’을 결합한 ‘안전문’은 합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13 ‘헛하다’의 ‘헛’은 접사가 아닌 어근에 해당한다. 여기에 쓰인 ‘-하다’가 어근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헛하다’는 ‘1. 일을 아무런 보람 없이 하다. 2.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이다.



어휘의 양상과 쓰임

활동

073~084쪽

- 탐구** 075쪽 2 경청
076쪽 3 기각
080쪽 5 뒤흔

학습목

073~084쪽

- 075쪽 ② 줄임말, 한자
078쪽 ① 전문어
② 외국어
082쪽 ① 인터넷
② 그림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3~084쪽

- 073쪽 01 ⑤ 02 ③ 03 ④
074쪽 04 기성세대 05 (1) ㄱ, ㄷ (2) ㄴ, ㄷ 06 ②
075쪽 07 ⑤ 08 ④ 09 ②
076쪽 10 ① 11 ④ 12 ①
077쪽 13 ⑤ 14 ② 15 ②
078쪽 16 ① 17 ⑤
079쪽 18 ⑤ 19 ④ 20 ⑤

080쪽 21 ④ 22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다. 23 ③

081쪽 24 ③ 25 ②

082쪽 26 ④ 27 ⑤

083쪽 28 ② 29 ①

084쪽 30 ③ 31 ④

- 01 언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한다. 즉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변화가 생긴다.
- 02 여학생이 '무료'를 공짜냐고 물어본 것은 '무료하다'의 '무료'가 '요금'이 없음을 뜻하는 '무료(無料)'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료하다'처럼 형용사로 쓰이는 '무료(無聊)'는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함'을 뜻한다.
- 03 '볼때', '알잘딱깔센', '국룰'은 최근에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새말이다. 이 말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④는 적절하지 않다.
- 04 뉴스 보도에서는 청소년층, 즉 젊은 세대가 쓰는 어휘와 기성세대가 쓰는 어휘 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 05 노년층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순우리말(ㄱ)이나 한자에 기초한 말(ㄴ)을 자주 사용하고, 청소년층은 줄임말(ㄷ, ㄹ)이나 신조어를 주로 사용한다.
- 06 노년층과 청소년층은 살아온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에 사용하는 어휘의 양상도 차이가 난다. ㄱ과 ㄴ은 노년층에서, ㄷ과 ㄹ은 청소년층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이다.
- 07 '경청(傾聽)하다'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다. 탄짓을 하게 되면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흘려듣게 된다.
- 08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 09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말한다. 어른 세대가 겪어 온 일이 다르고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 10 '도약'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이나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이다.
- 11 <보기>의 '변론'은 법 분야의 전문어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앞에 '법률'이라고 전문 분야가 표시되어 있다.
- 12 '과실'과 '청구'는 모두 법률 분야의 전문어이다. 나머지는 서로 다른 분야인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전문어와 법률 분야의 전문어가 연결된 것이다.
- 13 ⑤ '오븐 로스팅'은 공기를 뜨겁게 하여 볶는 방법으로, 요리 분야의 전문어이다. 나머지는 영상 분야의 전문어이다.

- 14 ㉠과 ㉡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특성인 '다의성'이 적다.
- 15 전문어는 각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휘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
- 16 경기는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 것이므로 기술과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ㄴ). 또한 경기의 진행이나 흐름을 따라가며 빠르게 중계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ㄱ).
- 17 주원은 전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어는 그 분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18 인터넷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쓰인다. 인터넷 언어는 소통 상황과 소통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시험 답안은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④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발표를 하는 상황이므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하므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9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그림말이 언어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이모티콘 외에도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 시청각적인 요소 역시 인터넷 언어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 20 '1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에서 '하나'를 숫자로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쓰인 '하나'는 주로 '하나도' 꼴로 쓰여 뒤에 오는 '없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낸다.
- 21 '생생하게 쓰기'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거나 음절을 반복하여 생동감 있게 쓰는 것이다. '보고시피는' '보고 싶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표현한 것으로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22 <보기>에서 '인정'을 'ㅇㅈ'으로 초성만 적은 것은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을 '세젤예'라고 첫 글자만 적은 것 역시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23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그림말을 포함하여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언어의 일부로 활용된다. (가)에서는 그림말, 사진, 영상이 모두 활용되었다.
- 24 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 게시판의 댓글 작성란은 모두가 함께 보는 공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인터넷 언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25 '윤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하듯 글을 썼지만, 급식실 줄 서기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 26 윤서의 원래 댓글과 고쳐 쓴 댓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공적인 공간인 학교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예의를 갖춘 말투로 고쳐 썼다.
- 27 인터넷 언어가 생명력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 언어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람직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28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이자 청소년층 어휘로,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의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 29 손자는 노년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인 ‘고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차이로 인해 손자가 할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0 자신이 쓰는 어휘를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상대를 고려하여 쉽게 설명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31 상대방에게 특정 어휘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나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압축 파일

086쪽

- ① 문화 ② 전문어 ③ 인터넷 ④ 새말 ⑤ 한자어
⑥ 한자어 ⑦ 생생하게 ⑧ 사진 ⑨ 상황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87~088쪽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6 ②
07 ③

- 01 (가)와 (나)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의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나)에 쓰인 ‘볼매’, ‘알잘딱깔센’, ‘국룰’은 주로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다.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한자어는 주로 기성세대가 사용한다.
- 02 다른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지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03 (가)에서 밑줄 친 어휘는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전문어로,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전문어는 어휘가 담고 있는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 04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가 일반인과 대화할 때에는 어휘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끼리 대화할 때는 대화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어를 활용할 수 있다.

- 05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는 인터넷 언어의 일부로 활용된다.

- 06 ⑥는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쓰는 ‘간편하게 쓰기’의 예로, ‘왜 이렇게’를 줄여 쓴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③ ‘H...’는 ‘H’의 발음이 ‘ㅎ’으로 나는 것을 이용해 ‘하’라는 글자를 표현한 것이다. 영문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쓴 ‘재미있게 쓰기’에 해당한다.

③ ③ ‘거야아아아아아’는 음절을 반복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생생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④ ④ ‘완존’은 ‘완전’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잘못 쓴 것으로 ‘재미있게 쓰기’에 해당한다. ‘완전’은 사전에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라는 뜻의 명사로 올라가 있으나, 요즘은 ‘(구어적으로)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라는 부사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

⑤ ⑤ ‘순삭’은 ‘시간 순삭’을 줄인 말로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07 (나)는 교내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글과 그에 대한 댓글을 보여 주고 있다. 작성자와 하준은 공적인 공간에서 예의를 지키며 글을 쓰고 있으나, 윤서는 사적인 대화처럼 글을 올리고 있어 인터넷 언어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89~091쪽

- 01 ① 02 ⑤ 03 하늘, 달 04 ③ 05 합성어, 파생어
06 ⑤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③
17 ④ 18 ⑤

- 01 어근만으로도 단어를 이룰 수 있다. 하나의 어근만으로 된 단어는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

- 02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나 / 는 / 일 / -꾼 / 에 게 / 했 - / 사과 / 를 / 주 - / -었 -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주-’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 03 **세술형**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이고,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보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하늘’과 ‘달’이다.

- 04 ‘은’은 조사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기에 단어로 인정한다.

오답 풀이 ① ‘저’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단어이며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도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② '눈사람'은 어근 '눈'과 어근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곧'은 그 자체로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녹겠다'는 '녹-/~겠-/~다'로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05 **서술형**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느냐,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06 황소바람은 어근 '황소'와 어근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나머지는 접사와 어근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먹구름'은 '먹-(접사) + 구름(어근)'의 구성이므로 파생어이다.

- ② '잔머리'는 '잔-(접사) + 머리(어근)'의 구성이므로 파생어이다.
 ③ '가위질'는 '가위(어근) + -질(접사)'의 구성이므로 파생어이다.
 ④ '겉쟁이'는 '겉(어근) + -쟁이(접사)'의 구성이므로 파생어이다.

07 접두사 '헛-'이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할 때에는 '헛걸음', '헛고생', '헛소문', '헛수고' 등으로 쓰인다. '헛-'이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할 때에는 '헛살다', '헛디디다' 등으로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참-'은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② '들-'은 '아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한-'은 '큰',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08 '맨땅'은 '아무것도 깔지 아니한 땅바닥'이라는 뜻으로,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땅'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여기에 사용된 어근은 '땅' 1개이다. '달무리'는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를 뜻하는 말로 어근 '달'과 어근 '무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여기에 사용된 어근은 2개이므로, '맨땅'과 '달무리'에 사용된 어근이 같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풀이 ① '뒷개'는 어근 '뒹-'에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③ '검붉다'는 '검고 붉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어근 '검다'와 어근 '붉다'가 결합하면서 '고'가 생략된 것이다.
 ④ '나뭇잎'은 어근 '나무'와 어근 '잎'이 결합할 때 'ㅅ' 받침이 첨가된 것이다.
 ⑤ '소나무'는 어근 '솔'과 어근 '나무'가 결합하면서 '솔'에 있던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이다.

09 새말에는 외래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포함되며, '채팅방(채팅 + 방)'처럼 우리말과 외래어를 결합하여 만든 새 말도 있다.

10 • 그림말 → 그림(어근) + 말(어근): 합성어
 • 누리꾼 → 누리(어근) + -꾼(접사): 파생어
 • 디지털화 → 디지털(어근) + -화(접사): 파생어

• 마을버스 → 마을(어근) + 마을(어근): 합성어
 그러므로 <보기>에서 '그림말'과 '마을버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누리꾼'과 '디지털화'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므로 ③과 같이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1 우리말 단어의 짜임을 고려하여 다듬어야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ㄴ). 또한 본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야 다듬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ㄷ).

12 이 뉴스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나는 실태를 제시하고, 서로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13 이 글은 세대 간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짐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보기>의 상황에서 해당 전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일반인은 전문어의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은 해당 전문어의 뜻을 몰라 경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5 '스파이럴'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면 『체육』 피겨 스케이팅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며 활주하는 동작.'이라고 나온다. 즉, 이는 체육 분야의 전문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페이드인'은 『영상』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일.'의 뜻으로 영상 분야의 전문어이다.

- ③ '파인 아트'는 우리말샘에서 뜻을 찾아볼 수 있다. 『미술』 실용성, 공리성을 배제한 순수 예술. 오로지 예술을 위해서만 예술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예술이다.'의 뜻으로 미술 분야의 전문어이다.
 ④ '최후 변론'에서 '변론'은 『법률』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또는 그런 주장이나 진술.'의 뜻이므로 법률 분야의 전문어임을 알 수 있다.
 ⑤ '오븐 로스팅(oven roasting)'은 『식품』 건열 조리법으로 공기를 뜨겁게 하여 볶는 방법.'의 뜻으로 식품 분야의 전문어이다.

16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다.

17 ④는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칭구들'이라고 잘못 쓴 표현으로, '재미있게 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헛'은 주로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감탄사로 사용되는 새말이다.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조음'은 '줄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③ '넘'은 '너무'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⑤ 'ㄱ'은 가자라는 뜻의 '고고'를 초성만 사용하여 간편하게 쓴 것이다.

18 문자를 보낼 때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통하는 대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세대가 달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삶을 가꾸는 글의 힘



추론하며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94쪽

01 추론 02 ③ 03 (1) ○ (2) ○

- 01** 추론이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하며 읽기는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글에 나타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 02** 글을 빠르게 읽는 것도 독서법 중 하나이지만, 추론하며 읽기는 글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읽는 것으로 빠르게 읽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는 집중해서 자세히 읽는 것이 좋다.
- 03** (1) 글을 읽는 중에는 글쓴이가 제시한 시각 자료를 보며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글을 읽기 전에는 책 표지나, 차례, 소제목 등을 보며 글의 내용을 미리 추측할 수 있다.

학습목

095~102쪽

- 097쪽** 처음 소주제: 쓰레기
① 투기, 호소문
- 099쪽** 중간 1 소주제: 화단
① 규제
② 무단 투기
- 100쪽** 중간 2 소주제: 피아노
① 구호, 캠페인, 피아노
중간 3 소주제: 숲
- 101쪽** ① 화장지, 아마존
- 102쪽** 중간 4 소주제: 흰색
① 과속, 가로선
끝 소주제: 변화
① 잔소리, 단속, 부드러운 힘, 자극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95~102쪽

- 095쪽** (1) 창의성 (2) 발칙하다
- 100쪽** 가미하여
- 101쪽** (1) 전복하다 (2) 자발적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95~102쪽

- 095쪽** 01 ① 02 ⑤
- 096쪽** 03 차례 04 ④ 05 ③
- 097쪽** 06 ⑤ 07 ④
- 098쪽** 08 넋지 효과 09 ① 10 ④
- 099쪽** 11 ⑤ 12 ⑤ 13 ④
- 100쪽** 14 ③ 15 ①
- 101쪽** 16 ④ 17 ②
- 102쪽** 18 ④ 19 ③ 20 ③

- 01** 추론하며 읽기의 과정 중 글을 읽기 전 책의 표지에서 살펴본 내용이므로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여야 한다. 표지의 그림이나 사진, 책의 제목이나 부제가 추론하며 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 02** 책 제목의 ‘발칙한’이라는 단어는 ‘하는 짓이나 말이 매우 버릇 없고 막되어 껄껄하다.’를 뜻하고 책의 부제에 나타나는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의 뜻을 나타낸다. 이로 보아 책에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책 표지에 ‘이야기로 만나는’이라는 부제가 있으므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책 표지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이라고 했으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책 표지의 부제에서 ‘창의성의 비밀’이라고 했으므로 창의성, 즉 새로운 생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비법은 이 책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03** 글을 읽기 전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그 책의 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책의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 04** ㉠은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이라는 글의 제목을 보충하는 부제이며 ㉠의 아래에는 소제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과 소제목을 활용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글의 부제를 살펴보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모두 ‘~하라’, ‘~말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부제 역시 명령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05** 각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이 아니라 부제이다. 제목은 질문 형식이나 문장을 완전히 끝맺지 않으므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반면, 부제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다른 글의 부제를 보면 모두 ‘~하라’, ‘~말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므로 ‘3부’에 실린 글의 부제는 명령형으로 끝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굵은 글씨로 된 제목 밑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제가 모두 달려 있다.

④ 첫 번째 글은 '요리', 두 번째 글은 '노벨상', 세 번째 글은 '예술 작품'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글의 제목은 의문형으로 끝나거나 문장을 확실하게 끝맺지 않음으로써 어떤 내용일지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06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통행 자체를 막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이다.

07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한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고 있지 않다.

08 '넋지'는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뜻으로 '넋지 효과'는 여기에서 파생되어 마치 팔꿈치로 쿡쿡 찌르듯 눈치를 주어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제나 단속처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09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담벼락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놓자 쓰레기를 버렸던 사람도 다시 가져가는 등 하루아침에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③ 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문제 해결 방법이다.

10 [A]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인상적'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를 사용한 맥락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11 '구호'는 '집회나 시위 따위에서 어떤 요구나 주장 따위를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독일의 공익 캠페인에서 사용한 구호는 계단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 에스컬레이터 옆에 피아노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을 만들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고 이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6퍼센트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13 공익 캠페인의 주제는 환경, 안전과 같은 것들이다.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공적인 영역을 다루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 캠페인에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공익 캠페인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캠페인이다.

② 넋지 효과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도록 유도할 뿐이다. 실제 선택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③ 넋지 효과는 작은 자극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익 캠페인의 주제는 사람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경, 안전 등이라고 하였다.

14 "이 캠페인은 '화장지를 아껴 씁시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대신, 넋지 디자인을 가미한 창의적인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이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사람들

이 화장지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게 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경각심을 주어 남미 지역의 숲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화장지 케이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②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를 가지고 남미 지역의 관광객 수의 변화를 알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사례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가 화장지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소개한 내용이며 화장지 케이스 소비량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으므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 글쓴이가 사례와 함께 시각 자료를 제시한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가 넋지 효과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16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30미터, 20미터, 10미터로 점점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린 것이다.

17 소재목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18 '부드러운 힘'은 '잔소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다.

19 ㉠은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해당한다. 캠페인이나 호소문, 시시 티브이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에 해당하므로 ㉠과는 관련이 없다.

20 <보기>의 빈칸에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특성과 관련된 말이 들어야 한다. '기계적인'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창의성이 없이 맹목적·수동적으로 하는'을 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활동

103~109쪽

탐구 103쪽 1 계단, 아마존, 속도

104쪽 3 화장지, 시각 자료

105쪽 3 의도

적용 108쪽 1 백색, 근력

2 갈색, 열

109쪽 3 신진대사, 갈색

학습곡

103~109쪽

105쪽 2 경험, 표지

109쪽 1 열량, 미토콘드리아

2 제목, 갈색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3~109쪽

105쪽 (1) 대안 (2) 반납

109쪽 (1) 흰색(하얀색) (2) 흑색(검은색, 까만색)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03~109쪽

103쪽 01 ⑤ 02 ⑤

104쪽 03 ③ 04 ① 05 ④

105쪽 06 ④ 07 ⑤

106쪽 08 ⑤ 09 다방구 10 ③

107쪽 11 ④ 12 ⑤ 13 ①

108쪽 14 ④ 15 ⑤ 16 ⑤

109쪽 17 ② 18 ⑤

01 곡선 구간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은 중심부로 갈수록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리는 것이다.

02 글쓴이는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넋지 효과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라고 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서연이의 말에서 기존에 많이 쓰이던 방법이 규제나 감시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호소문 부착과 시시 티브이 설치 등은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사람들의 행동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문제 상황도 해결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④ 민준이의 말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법인 넋지 효과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는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의 표현 방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표지 그림을 보면서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04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글의 흐름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였다. 글쓴이의 직업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5 이 글은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넋지 효과를 활용해 해결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④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글의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06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추론하며 읽는 이유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여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이다.

07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인 ⑤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구호 외치기, 단속, 경고문 부착, 감시 등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08 이 글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친근한 어투로 쓰여 있으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내용과 관련한 사진이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이유를 우리 몸속 지방의 종류와 역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글쓴이가 어렸을 적 하던 ‘다방구’ 놀이에 관한 일화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문장을 ‘~지요’, ‘~해요’와 같이 친근한 어투로 끝맺고 있다.

④ 글쓴이는 ‘정말 아이들은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탈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처럼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09 1문단 옆에 제시된 질문에서 글 제목과 ‘다방구’ 일화를 통해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10 3문단에서 우리 몸의 지방은 대부분 백색 지방이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다량으로 포함된 일부 지방 세포는 갈색을 띠는 갈색 지방이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3문단에서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몸속의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지방의 종류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대부분 흰색에 가까운 백색 지방이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지방이 갈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갈색 지방 세포라고 한다고 하였다.

11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것은 백색 지방의 역할이다.

12 갓난아이들은 몸에 열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의 비율이 성인보다 높아서 추위를 덜 탄다.

13 글쓴이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주는 유산소 운동에 관한 연구 결과와,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차갑게 유지하여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4 ‘갈색 지방의 비밀’이란 갈색 지방이 하는 역할과 갈색 지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가리킨다. 갈색 지방은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게 해 주며, 유산소 근력 운동과 체온을 일정 시간 차갑게 유지하는 것을 통해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15 글쓴이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소개하며 추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익할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 16 ⑤는 글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글쓴이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갓난아이들 몸속의 갈색 지방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와 같은 질문이 적절하다.
- 17 몸속의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유산소 근력 운동 및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차갑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 오답 풀이** ①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유산소 근력 운동이나 몸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이 글은 몸속 지방에 대한 글이지 음식에 들어 있는 지방에 대한 글이 아니다.
 ④ 갈색 지방을 늘리려면 유산소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유산소 근력 운동에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에어로빅 하기 등이 있다.
 ⑤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차갑게 유지해야 갈색 지방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했다. 온탕에서 목욕하거나 찜질을 하는 것은 몸의 온도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8 글쓴이는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에게 유산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여 갈색 지방을 늘리라고 조언할 수 있다.

* 압축파일

- 111쪽
- ① 쓰레기 ② 낯지 효과 ③ 호소문 ④ 화단 ⑤ 계단
 ⑥ 피아노 ⑦ 지도 ⑧ 부드러운 힘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12~114쪽

- 01 ③ 02 ② 03 낯지 효과 04 ③ 05 ④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②

- 01 이 글에는 낯지 효과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만 낯지 효과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02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담벼락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낯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규제나 감시 대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이다.

- 03 **서술형** (나)에서는 ‘낯지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며, 담벼락에 화단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든 것을 낯지 효과의 사례로 들고 있다.
- 04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담벼락에 꽃을 심어 화단을 만들자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
- 05 글을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은 읽기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이지,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 06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남미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정도로 거대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의 독일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피아노 계단을 설치한 것이나, (나)의 남미 지도 모양의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인 것처럼 낯지 효과를 이용한 공익 캠페인은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하였다.
 ③ 남미 지도 모양의 화장지 케이스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은 (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케이스가 전 세계 화장실에 도입되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④ 곡선 구간에서 흰색 가로선을 그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한 것은 우리나라 부산의 자동차 전용 도로이다. 또한 노면 색깔 유도선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것이다.
 ⑤ 곡선 구간에 그려진 흰색 가로선은 운전자가 중심부로 갈수록 실제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느끼게 하여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끔 만든다.
- 07 ①은 ‘낯지 효과’를 활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리킨다.
- 08 글쓴이는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갈색 지방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날씨가 춥거나 움직이기 귀찮다고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산책이나 운동 등 외부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갓난아이가 갈색 지방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지방이 우리 몸에 해롭기만 하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② (다)에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백색 지방이 아니라 갈색 지방이라고 하였다.
 ③ (라)에서처럼 유산소 근력 운동인 달리기나 수영 등을 하려면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이 적절하다. 또한 생활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이 추위에 적응하기에 더 적절하다.
 ④ (다)에서 몸속에 갈색 지방이 많으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진다고 했으므로 갈색 지방을 줄이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09 성인의 경우도 몸속에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 10 ①이 가리키는 연구는 온도를 다르게 조정한 공간에서 머무는 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유산소 근력 운동의 실험 결과는 기존에 실시한 다른 연구의 결과이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15쪽

01 근거 02 (1) × (2) × (3) ○ 03 ④

- 01 근거란 '어떤 일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의미하며,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02 (1)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주장하는 글의 '결론' 부분에서 할 일이고, (2)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주장하는 글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3) 주장하는 글의 일반적인 3단 구성이다.
- 03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주장과 연관성 있는 근거를 들고,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곡

116~125쪽

- 123쪽 ① 주장, 개요
② 근거
125쪽 ① 소비자, 게시판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16~125쪽

- 116쪽 (1) 정반대 (2) 유형 (3) 즉흥적
119쪽 (1) 응답자 (2) 특성 (3) 활용

활동

116~125쪽

- 탐구 116쪽 1 성격
118쪽 2 채용
119쪽 2 출처, 전문가
120쪽 3 심리
적용 124쪽 1 평점
125쪽 3 공정 거래 위원회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6~125쪽

- 116쪽 01 ⑤ 02 결과
117쪽 03 ③ 04 정식 05 ④
118쪽 06 ④ 07 ① 08 ②

- 119쪽 09 ⑤ 10 ④
120쪽 11 ③ 12 ⑤ 13 a
121쪽 14 ⑤ 15 ⑤ 16 ④
122쪽 17 ③ 18 ③ 19 전문가, 신뢰도
123쪽 20 ③ 21 ③ 22 고쳐쓰기
124쪽 23 ③ 24 ① 25 ④
125쪽 26 ⑤ 27 ③

- 01 지유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성격 유형 검사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 02 지유는 성격 유형 검사가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하였다.
- 03 자료 ㉠은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인 엠비티아이 검사의 설문 문항은 중간을 허용하지 않고 A이거나 B라는 식으로 성격을 둘로 가르도록 구성되어 있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가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4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엠비티아이 검사 사이트의 관계자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가 맞다는 질문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 05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엠비티아이 검사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의 내용을 토대로, 엠비티아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06 엠비티아이 검사에서 응답자가 문항에 스스로 답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응답자가 엠비티아이 검사에서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③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 연구부장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사를 진행하면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였다.
⑤ 개인이 혼자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심리적 선호에 관한 문항에 스스로 응답하므로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지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 07 ○○○ 심리학과 교수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검사 결과를 자신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08 자료 ㉢에 따르면 엠비티아이 유형은 채용 절차법상 규정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엠비티아이를 기업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채용 절차법 위반은 아니다.

③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④ 지원자의 엠비티아이 유형은 채용 절차법상 개인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엠비티아이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9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담긴 자료는 주관적이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⑤를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자료 **마**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유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하자.”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즉, 자료 **마**는 지유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1 ㄱ.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면 주장과 그 이유 및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ㄴ, ㄷ. 글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풀이 ㄹ.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해당한다.

12 주장하는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 결론 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 의견을 반박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13 <보기>의 내용은 문제 상황을 제시한 내용이므로 개요의 서론에 들어가야 한다.

14 이 글은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5 본론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분류에 따르면 외향 55퍼센트인 사람은 외향형으로만 인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엠비티아이는 외향형, 내향형과 같이 두 가지로만 분류할 뿐 중간 성향은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너지그램, 디스크, 엠비티아이 등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의 종류가 다양하다.

② 엠비티아이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총 열여섯 가지로 성격을 제시한다.

③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 갈등이 생기는 등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④ 엠비티아이는 중간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해석을 듣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개의 알파벳이 표현하는 전형적인 성격으로만 성격 유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6 ㉠은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운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와 그에 따른 신뢰도의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7 인터넷상의 무료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18 글쓴이인 지유는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19 (6)에서 글쓴이는 전문가인 ○○○ 심리학과 교수의 의견과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에 제시된 안내문을 인용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0 이 글의 소재인 ‘성격 유형’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서론에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 주장하는 글에서는 하나의 화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중에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면 논지가 흐려지며, 독자가 주장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 고쳐쓰기는 점검 기준에 따라 쓴 글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고쳐 쓰는 과정이다.

23 ‘기사 1’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케이크를 주문하였다가 사진과 너무 다른 모습의 상품이 와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꼭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관점을 전하고 있다.

24 ㉠은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 관점에서 주장을 펼친다면,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있을 때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를 근거로 제시해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5 ‘기사 2’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음식이 기름지다.”와 같은 트집을 잡는 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영업자가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게시판에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는 손님이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6 ‘주장 2’는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27 거짓 후기가 많아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선택한 주장과 연관성이 있고, 실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근거를 구성해서 근거의 신뢰도도 높다.

* 압축파일

127쪽

- ① 성격 ② 무료 ③ 결과 ④ 주장 ⑤ × ⑥ 의존
⑦ 중간 ⑧ 근거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28~129쪽

- 01 ③ 02 한계점, 신뢰도 03 ④ 04 ③ 05 ④

- 01 (라)에서 최근에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채용 절차법상 위반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 02 **서술형** (가)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하여 '중간'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응답자가 스스로 진단하여 결과를 얻는 검사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03 <보기>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성격 유형 검사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라)는 기업에서 채용 시에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내용만 전하고 있어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는 <보기>를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성격 유형 검사가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자료이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경우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이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자유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담고 있어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가)~(다)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활용할 수 없다.

- 04 글쓴이는 (가)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다)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 1~3을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며, (라)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때 근거 2는 (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내용이 ㉠에 들어가야 한다.

- 05 ㉠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어서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관적인 표현은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독자가 사실로 믿기 어려우며, 단정적인 표현은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드러나도록 ㉠을 수정한 것이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30~131쪽

- 01 ④ 02 ① 03 부드러운 메시지 04 ② 05 ②
06 ①

- 01 이 글은 넋지 효과를 활용해 담벼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춘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넋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02 넋지 효과와 관련한 사례를 다룬 기사를 통해 얻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담벼락 앞 화단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한 것이다.

- 03 **서술형** (마)에서 글쓴이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천 마디 잔소리'에 비유하고,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부드러운 메시지'에 비유하며 넋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04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뿐 엠비티아이에서 분류하는 성격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거나 그에 따른 자기 계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 따르면 성격 유형은 같은 유형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 따르면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총 열여섯 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 따르면 엠비티아이 검사에서는 외향이 내향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외향형으로, 내향이 외향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내향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⑤ (라)에 따르면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의 문항이나 측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 05 ㉠은 글쓴이의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처럼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내용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 06 '어떤'은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할 때 쓰는 말'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모호한 표현이다. 반면,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이므로 '청소년들은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매체와 생활

활동

134~145쪽

탐구 136쪽 1 정보

2 시간

144쪽 2 의도, 비판적

적용 145쪽 2 시간

학습목

134~145쪽

136쪽 1 자본

140쪽 2 전문성, 쌍방향

144쪽 3 관점

4 의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34~145쪽

134쪽 01 ② 02 ②

135쪽 03 매체 자료 04 ③

136쪽 05 ③ 06 ② 07 ③

137쪽 08 ㄴ, ㄹ 09 수용자

138쪽 10 ⑤ 11 여행

139쪽 12 개인 인터넷 방송 13 ⑤ 14 ④

140쪽 15 ② 16 ④ 17 전문가

141쪽 18 ④ 19 ②

142쪽 20 ⑤ 21 ⑤

143쪽 22 ④ 23 ⑤

144쪽 24 ④ 25 ② 26 ①

145쪽 27 ② 28 ⑤ 29 ④

01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전통적인 대중매체 외에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여 뉴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대중매체가 생겨났다.

02 전통적인 대중매체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으며, 이 중 라디오는 소리와 음성만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풀이 ① 신문은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다.

③, 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소리와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이다.

④ 텔레비전은 소리와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하는 영상 매체이다.

03 ‘매체 자료’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04 텔레비전 뉴스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매체 자료로, 시청자는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여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영화, 텔레비전 등은 소리, 음성, 문자, 영상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이다.

② 인터넷이 보편화되어도 기존의 인쇄, 음성, 영상 매체는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④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를 제작할 때에는 전문 제작 기술과 장비,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⑤ 요즘은 전자책, 인터넷 신문처럼 형태나 기능이 다양한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06 대중매체 자료는 기획, 제작, 편집 등 각 과정을 분야별 전문 인력이 분담하여 만든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제작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07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며, 많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08 수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의 확산(ㄴ)과 스마트폰의 보편화(ㄹ)가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의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인쇄술의 발달은 문자와 사진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ㄷ. 텔레비전의 등장은 소리,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09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자인 ‘나무별’이 시청자의 댓글에 바로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기획, 진행, 촬영, 편집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송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도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편집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생방송의 경우에는 편집 과정이 생략된다.

11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방송을 선택해 시청한다. ‘나무별’이 여행 전문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의 방송을 시청할 것이다.

1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모든 제작 과정을 개인이 직접 수행해 인터넷에 공유하는 방송 형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는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방송과는 구별된다.

13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하며(ㄷ),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제작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ㄹ).

오답 풀이 ㄱ.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비해 제작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14 생산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수용자가 보이는 특징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자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

15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주로 공익을 고려한 소재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한 시청자의 댓글에 다른 시청자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수용자 간의 소통 사례에 해당한다.

17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기획, 촬영, 편집 등 각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8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 생산자는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많은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며, 수용자는 일반 대중이다. 또한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은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개인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매체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과 같이 우리나라의 노래가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매체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를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습득하기도 한다.

㉢, ㉤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매체를 통해 공동체에게 알려짐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 교육 방송이나 각종 무료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0 사회 문제와 관련해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것 자체는 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체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21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올바른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이다.

22 대중매체나 개인 인터넷 방송과 같은 매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는 경우, 매체 자료의 수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력에 해당한다.

23 <보기>는 뉴스 보도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된 사례이다. 이는 대중매체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준다.

24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로 제한되므로, 대중매체에 비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

25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짓 뉴스를 전하거나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된다.

26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생산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비판적 수용이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27 '우리끼리 시상식'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매체 자료를 시상하는 활동이다. 폭력적인 장면으로 흥미를 자극한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상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28 시간 제한 없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9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매체가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오답 풀이 ㉠ 매체를 이용할 때, 매체를 이용하는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매체를 이용할 때, 미리 정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는 등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매체를 이용할 때, 정보가 객관적인지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 매체를 이용할 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자료와 같이 자극적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압축파일

147쪽

- ① 신문 ② 인터넷 ③ 자본 ④ 대중 ⑤ 일방향
- ⑥ 실시간 ⑦ 소식 ⑧ 문화 ⑨ 정보

01 ③ 02 ⑤ 03 ② 04 ② 05 ③

- 01** (가)의 내용으로 보아 신문과 잡지는 문자와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다, 또한 라디오는 소리와 음성 같은 청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매체이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대중매체가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를 통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가 모두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를 통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도 대중매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진행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수용자가 남긴 '여행지에서 영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는 생산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02** (나)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도 부담 없이 매체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이 전문 장비 마련에 많은 제작 비용이 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학생의 말 앞에 전문가가 한 말로 보아 ㉠에는 전통적인 대중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대중매체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대중매체는 기획, 제작, 편집 등의 과정을 각각 연출가, 작가, 기자, 연예인 등의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나누어 맡아 대중매체 자료를 만든다.

③, ④ ㉡과 ㉢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대중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므로, ㉡에는 생산자가 ㉢에는 수용자가 들어가야 한다.

⑤ ㉢에는 대중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매체 자료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에서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04**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라는 말을 기점으로 앞부분에서는 두 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후에는 두 매체의 부정적인 점을 다루고 있다.

- 05**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출처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보가 최신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매체 자료 제작에 든 비용은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존중하는 언어생활

활동

150~163쪽

- 탐구** 154쪽 1 알코올, 편견, 양파
157쪽 2 대화방, 스트레스, 인격
159쪽 3 말
160쪽 4 속담
161쪽 5 댓글
적용 162쪽 1 음악

학습목

150~163쪽

- 155쪽 ① 상처
158쪽 ② 대화방, 메시지, 장소
161쪽 ③ 긍정적
163쪽 ① 나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0~163쪽

- 150쪽 (1) ○ (2) ○
151쪽 (1) 휩싸이다 (2) 이끌다
154쪽 폭력
157쪽 (1) 해코지 (2) 모멸스럽다
158쪽 (1) 도려내다 (2) 강화하다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0~163쪽

- 150쪽 01 ① 02 ⑤
151쪽 03 ⑤ 04 ③
152쪽 05 ② 06 ⑤ 07 ⑤
153쪽 08 ① 09 ④ 10 ④
154쪽 11 ① 12 ③
155쪽 13 ⑤ 14 ② 15 ③
156쪽 16 가상 공간 17 ① 18 ②
157쪽 19 ② 20 ④
158쪽 21 ③ 22 ⑤
159쪽 23 비수 24 ① 25 ④
160쪽 26 ③ 27 ① 28 ④
161쪽 29 ④ 30 ⑤ 31 ③
162쪽 32 너 33 ⑤ 34 ①
163쪽 35 ④ 36 ⑤

- 01 이 글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대본으로,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 02 지아는 선을 따돌리기 위해 선에게 준 색연필을 빌려준 것처럼 말을 바꾼다. 선은 보라 무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아에게 받았던 색연필 세트를 돌려준다.
- 03 보라는 선에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라며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재 좀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처럼 험담을 하며 선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 04 선은 학급 친구들이 칠판에 자신을 비하하는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서 세차게 칠판을 지우고 있다.
- 05 지아는 선생님이 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라며 버릇없이 대답하고 있다.
- 06 [S# 65]에서는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지아가 외톨이인 선과 어울릴 경우 자신도 보라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선을 따돌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7 [S# 65]에서 선이 예전 학교에서 왕따였던 지아의 과거를 폭로하자 지아는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이다 화를 낸다. 따라서 아무도 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8 [S# 65]에서 선은 지아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하는 애를 누가 좋아해?”와 같이 지아를 인신공격하며 비난하고 있으므로 선의 말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09 [S# 1]에서 은주가 선이 금을 뺏았다고 모함했던 것처럼, [S# 70]에서는 아이들이 지아가 금을 뺏았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 10 선은 지아와 싸운 상태였지만 친구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지아의 모습을 보고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진실을 말한다.
- 11 ①은 [S# 64]에서 지아와 선이 복도에서 싸울 때 지아가 선에게 한 말이다. 이를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②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표현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12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언어폭력을 당한 친구와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나는 등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13 칠판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낙서가 되어 있던 것은 지

아가 아닌 선을 겨냥한 악의적인 행동이다.

- 14 ㉠~㉢에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들어갈 수 있다. ㉠ 뒤에 지아의 대사를 보면 선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에서 상대를 질책하는 말투를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5 선과 지아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다시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거나 상대 탓을 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 16 이 글은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와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를 제시하여 가상 공간 속 언어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기사이다.
- 17 이 글은 1문단에서 서울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가상 공간 속 학교 폭력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2문단에서 한국 지능 정보 사회 진흥원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가상 공간 속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18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대화방에 초대하여 언어폭력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 19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제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 언어폭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이의 느낌이다. 즉, 상대가 장난으로 했거나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듣는 이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 말은 명백한 언어폭력이다.
- 21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학교 폭력 신고 센터(117) 등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유리 파편’은 실제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처럼 신체에 해를 끼쳐듯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을 ‘유리 파편’에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가슴에 꽂혀서 신체에 상처를 주는 물리적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23 ‘비수’는 짧은 칼이지만 쥘싸게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이다. 이러한 비수의 특성에 말을 비유한 “말이 비수가 된다.”라는 표현은 말이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이 글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비수’와 ‘유리 파편’에 비유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의 폭력성을 일깨우고 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반응이 적절하다.
- 25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 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이다.

26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27 [A]의 대화에서 두 남학생은 서로 존중하지 않고 공격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욕설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

28 서로를 존중하며 말하는 태도의 필요성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말하는 태도보다는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 오답 풀이**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②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29 서로 존중하는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심각한 이야기가 곧 부정적인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각한 이야기를 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0 연주는 상대의 결심에 대해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로 대답함으로써 언어 예절을 지키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
 ②, ③, ④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빈정대는 대답이므로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

31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리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32 <보기>는 '너 전달법'에 대한 설명이다. '너'를 주어로 하여 표현할 때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을 탓하기 쉬우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3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34 [A]는 '너 전달법'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해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는 음악 소리가 불편하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자신의 바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문제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35 부모님도 자신처럼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당한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부모님이 느껴 보라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 전달법과는 거리가 멀다.

36 ⑤는 동생이 한 대로 똑같이 갚아 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압축 파일

165쪽

- ① 명예 ② 신체 ③ 갈등 ④ 인터넷 ⑤ 욕설 ⑥ 시간
 ⑦ 가해자 ⑧ 인격 ⑨ 감정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66~167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1 (가)는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을 다룬 영화 대본이고, (나)는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다룬 기사이다. 언어폭력은 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가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학교에서의 언어폭력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항상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할 수는 없다.

02 선은 [S# 61]에서는 학급 아이들에 의해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지만, [S# 65]에서는 지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 가해자이다.

- 오답 풀이** ① 언어폭력이 대화와 같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칠판의 낙서처럼 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② 지아는 예전 학교에서 왕따를 이끌었던 주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따를 당했었다.
 ③ 선이 칠판의 낙서를 보고 칠판지우개를 거칠게 닦아냈다는 점, 손이 부러질 듯 낙서를 박박 지웠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선과 지아가 교실에서 싸울 때 주변 아이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에서 아이들이 이 둘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4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며 비난하는 말하기로 상처를 주는 것이 문제이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05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사실 여부를 지적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며 말하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서로 존중하며 말하기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 06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③은 다칠 뻔한 상황에 대해 '너'를 탓하는 표현이므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대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①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표현이다.
 ②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다.
 ④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다.
 ⑤ 상대방에게만 탓을 돌리지 않고 서로 조심하자며 자신의 기대를 전하고 있다.
- 07 ①은 말이 유리 파편처럼 상대의 가슴에 꽂힌다는 표현과 의미가 통하는 표현으로,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말을 잘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03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ㄷ),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담아 수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ㄴ). 또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자료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ㄱ),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등(ㄹ)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04 **서술형** (가)에서 학생이 대중매체 자료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만드니 신뢰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05 <보기>는 매체 자료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준다.
- 06 (가)에서 선의 학급 친구들은 선을 험담하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있으며, (나)에서 지아는 선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에서 상대의 성적을 비하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 07 대화할 때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 08 한국 지능 정보 사회 진흥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 학생 9,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37.5퍼센트가 가상 공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절반 이상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단체 대화방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초대하여 욕설을 쏟아 내는 방식도 언어폭력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다양한 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33.3퍼센트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③ 2문단의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
 ⑤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어폭력의 유형으로 거짓 정보나 소문, 악의적인 이야기를 메시지로 퍼뜨리는 것도 언어폭력이라고 하였다.

- 09 **서술형** 가상 공간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의해 현실이 아닌 허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뜻한다. 여기에 벌어지는 욕설이나 위협, 악의적인 발언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10 (가)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을 듣고 답하고 있으며, (나)에서 학생 4 또한 학생 3의 말을 듣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대화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입장만 말하는 문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11 서로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은 먼저 사과하는 학생 1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68~170쪽

- 01 ① 02 ④ 03 ④ 04 대중매체 자료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만들기 때문이다.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인터넷,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등으로 욕설, 거친 언어,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0 ⑤ 11 ③

- 0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②, ④, ⑤는 대중매체의 특성에 해당하고, ③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에 해당한다.
- 02 방송국에서 완성한 매체 자료를 시청자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특성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와 달리 개인이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전달한다.
- 오답풀이** ①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주로 많은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방송국, 신문사 등이다. 이를 소비하게 되는 수용자는 대중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는 주로 신문사나 방송국 등에서 미리 제작되고,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③,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 댓글 창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즉, 생산자와 수용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1 마음을 비추는 글



문학과 성장

간단+복습문제

03쪽

- 꼭지 시험** 01 성장 02 성찰 03 1인칭 04 ㉠ 05 ㉡
06 ㉢ 07 ㉣ 08 ㉤ 09 ㉥, ㉦ 10 ㉧, ㉨
어휘 시험 01 거들떠보지도 02 혈령하게 03 오기 04
㉩ 05 ㉪ 06 ㉫ 07 ㉬ 08 머리채 09 철물점
10 군소리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5쪽

- 01 ㉢ 02 ㉠ 03 ㉤ 04 ㉡ 05 멍키 스페너 06 ㉢
07 ㉤

- 01 (나)에서 할머니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한다. 이는 '나'가 수리비와 출장비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가 '나'를 나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철물점 할머니는 '나'에게 한성 설비 사장님은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로 5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 주었다.

② (가)에서 '나'는 세면대 물이 안 내려 가는 이유를 자신과 동생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④ (가)에서 '나'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만년 철물점에 들러 할머니에게 세면대를 뚫기 위한 조언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이 천년만년(아주 오랜 세월) 장사를 하기 위한 이름 같다며 못마땅해한다.

⑤ (나)에서 '나'는 한성 설비 사장님의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전 재산의 반을 털어 세면대를 수리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나'는 자신에게 10만 원이 있지만 이 돈은 세면대를 고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02 '나'는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철물점에 들렀고, 그곳에서 한성 설비 얘기를 듣고 돈을 주고 수리를 맡기려다가 비싼 비용에 포기한다. 이후 관리 사무소에도 찾아가지만 낮은 아저씨를 동생과 둘이 있는 집에 오게 할 수 없어 포기한다.

- 03 (다)에서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세면대 문제를 얘기하려던 '나'는 (라)에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동생과 둘이 있는 집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나온다.

- 04 (나)는 사람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가)에서 '나'는 할머니에게 전구 가는 법을 물으러 갔는데, '나'의 엄마도 평소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으러 간다는 것에서 '나'와 '나'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철물점 할머니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신세를 갚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철물점 할머니가 '나'의 동생을 친근하게 대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나'가 동생 없이는 할머니에게 부탁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집에 뭐가 안 돌아갈 때마다 엄마가 철물점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엄마가 일을 해결했지 '나'가 엄마 대신 일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는 세면대를 고칠 때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한 도움 없이 세면대를 고치기 힘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 05 **서술형** '나'는 동영상에서 막힌 배수관 고치는 법을 확인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빌린 멍키 스페너로 직접 세면대 배수관을 고친다. 이를 통해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 06 (나)는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운 듯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이다.

오답 풀이 ① '나무'와 '공기'의 관계로부터 '우리'로 시선을 확장함으로써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다.

②, ④ 1연 2행의 '~ 있나요?'는 의문형으로 종결함으로써 생명은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내용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그래요', '보세요', '하지요'는 모두 상대 높임 중 비격식체인 해요체에 해당한다. 1연 3행의 '보세요'는 상대 높임에서 명령형이나 청유형에 사용되는 어미이다.

- 07 철물점 할머니가 전구 가는 것이 밥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 까닭은 '나'가 충분히 전구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06쪽

1단계 01 만년 철물점

2단계 02 할머니의 손주 경빈이가 동생 한아의 어린이집 친구이기 때문이다.

3단계 03 (가)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의 이름을 지나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나)에서 '나'는 가게 이름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도 만년 철물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만년 철물점 할머니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단계

- 01 '나'는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 철물점 할머니를 찾아간다.

2단계

- 02 (가)에서 '나'가 혼자 만년 철물점에 갔을 때는 요구르트를 얻어먹지 못했지만, (나)에서 할머니 손주 경빈이와 친구인 동생 한아와 함께 만년 철물점에 갔을 때는 할머니에게 요구르트를 얻어먹는다.

3단계

- 03 (나)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전구 가는 법을 물으러 가서, 엄마가 집에 뭐가 잘 안 돌아갈 때마다 할머니를 찾았던 일과 할머니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자신도 철물점이 오래도록 이 자리에 있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목표	인물의 관점과 태도 변화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가)에서의 생각과 (나)에서의 생각을 대조하여 쓰고,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쓴 경우 [25점] ✓ (가)와 (나)의 생각만 비교하여 쓴 경우 [15점] ✓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만 쓴 경우 [15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07쪽

1단계 04 유리컵

2단계 05 '나'와 동생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서 생긴 물때가 잔뜩 낀 머리카락 뭉치

3단계 06 '나'가 세면대 배수관을 고치는 방법이 담긴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보면서 과정을 외웠기 때문이다. 또한 동생 한아가 옆에서 핸드폰을 들고 플래시를 비춰 주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1단계

- 04 '나'는 동생을 어리게만 생각했으나 세면대 배수관을 고칠 때 도움을 주려는 동생의 모습에서 의리를 느낀다. 이에 '나'는 동생도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마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단계

- 05 '나'와 동생 한아는 둘 다 머리가 긴데, 그 긴 머리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이 뭉쳐 세면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3단계

- 06 '나'는 직접 세면대 배수관을 고치기 위하여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후 멍키 스캐너를 이용해 동영상에서 본 순서대로 작업을 해 배수관을 수리하는 데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동생 한아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플래시를 비춰 주며 '나'의 수리 과정을 도왔다.

평가 목표	사건의 진행 과정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나'가 동영상을 보며 고치는 과정을 외웠다는 점과 동생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쓴 경우 [20점] ✓ '나'가 동영상을 보며 고치는 과정을 외웠다는 점만 쓴 경우 [15점] ✓ 동생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만 쓴 경우 [15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진술한 글 쓰기

간단·복습문제

09쪽

쪽지시험 01 정서 02 정서 03 진술하게 04 계획하기
05 구체화 06 개요 07 고쳐쓰기 08 ○ 09 ○ 10 ×
어휘시험 01 틈 02 뜬금없이 03 송장 번호 04 글감
05 개요 06 주제 07 표현 08 사계절 09 탐차 10
운송장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0~11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⑤ 05 ② 06 ① 07
② 08 ④

- 0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

- 02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종류에는 수필, 일기, 자서전, 기행문 등이 있는데,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03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을 여러 번 읽어 보며 글의 내용과 구성, 표현을 두루 수정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오답풀이 ①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보다는 '표현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글을 쓸 때에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작성해도 좋지만, 글의 개요에 따라 처음부터 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글을 한 번만 읽어서는 고쳐 써야 할 부분을 모두 찾을 수 없다. 고쳐 쓰기를 할 때에는 글을 여러 번 읽으며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이 좋다.

④ 주요 글감이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지 모든 경험을 쓰다가는 글을 완성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주제로 쓴 글인지도 알 수 없게 된다.

⑤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내용이나 구성, 표현까지 모두 고쳐 쓸 수 있다.

- 04 (나)는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아빠는 '산타', 탐차는 '루돌프',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비유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택배 배달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아빠의 책임감을 보여 주는 대화는 (가), (나) 모두 나타나 있다.

② (가)에 비해 (나)의 내용이 압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에서는 아빠가 배달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글쓴이의 추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는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을 '선물'에 빗대고, 아빠가 배달해야 하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05 '운송장'을 '지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가)에서는 아빠가 운송장에 적힌 정보들로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운송장이 저마다 개성 있는 필체로 적힌 단 하나의 지도가 된다고 하였다.

06 <보기>는 글로 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글감은 비 오는 어느 초여름 날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직접 지켜본 경험이다.

07 이 편지에는 아빠 중섭이 아들 태현에게 보내는 사연과 아들들을 그린 그림이 함께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편지는 아빠 중섭이 아들 태현에게 보낸 것이다.
 ③ 아빠 중섭이 태현에게 쓴 편지로, 태성에게 따로 보낸 편지는 나와 있지 않다.
 ④ 아빠 중섭은 아들 태현이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을 다음 편지에 써서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⑤ 아빠 중섭이 편지에 함께 그린 그림은 아들 태현과 태성의 모습이다.

08 이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아빠의 애뜻함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앞으로 아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지는 이 편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12쪽

- 1단계** 01 (가) 정말 속상했다. (나) 경이로운 눈빛
2단계 02 비 오는 날,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
3단계 03 옆에서 지켜본 아빠의 하루와 아빠에게 느낀 '나'의 감정

1단계

01 (가)에서는 비를 맞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속상해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물건의 상태와 배달한 집의 상황까지 기억하는 아빠를 놀랍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단계

02 이 글은 어느 초여름 날 택배 일을 하는 아빠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글쓴이의 경험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3단계

03 이 글에는 비 오는 어느 초여름 날 택배 일을 하는 아빠의 하루를 함께했던 경험과, 아빠의 모습을 보며 느낀 글쓴이의 감정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 목표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표현하기
채점 기준	✓ 아빠의 하루를 지켜본 내용과 거기에서 느낀 감정을 모두 제시한 경우 [15점]
	✓ 아빠의 하루를 지켜본 경험만 제시한 경우 [10점]
	✓ 아빠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만 제시한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13쪽

- 1단계** 04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일
2단계 05 "집에 아무도 안 계신데, 물건은 누가 가져가지 않게 잘 넣어 놓을게요."
3단계 06 (가)에서 '나'는 아빠의 하루를 보면 살이 베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빠를 안타까워하지만, (나)에서 '나'는 아빠가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산타 같이라며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

1단계

04 열두 자리의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일, 주소를 머릿속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뒤 그곳을 향해 뛰거나 운전하는 일, 탑차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 등에서 글쓴이의 아빠가 택배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05 물건을 배송받을 사람에게 전화하여 누가 가져가지 않게 물건을 잘 넣어 놓겠다고 하는 아빠의 말을 인용하여 아빠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3단계

06 이 글은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아빠의 일을 도우면서 아빠가 하는 택배 일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평가 목표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가)와 (나)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아빠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가)와 (나)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만 활용한 경우 [15점]
	✓ 비유적 표현 없이 아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만 표현한 경우 [10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4~17쪽

-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② 07 ⑤
 08 ㉔: 막힌 세면대를 뚫는 일, ㉕: 한성 설비 09 ③ 10 ①
 11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③

01 ⑤는 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청소년 주인공인 '나'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므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은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독자는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보게 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심정을 바로 나타내므로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② (가)~(라) 부분은 소설의 처음 시작 부분인 발단 단계에 해당한다.
④ '나'가 동생을 보며 집을 지키는 일,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다가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일 등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02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서 문을 열어 놓아야 했기 때문에 샤워는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이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세면대가 막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차마 동생에게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하나도 보이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불임을 보게 한 것이다.

04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④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⑤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말.

05 '저희 엄마가요,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는 '나'가 직접 내뱉은 말이 아니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가여운 척하려고 생각만 한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철물점 할머니는 경빈이 할머니이고, 경빈이는 '나'의 동생 한아와 같은 어린이집을 나왔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경빈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는 할머니와 살았으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 집으로 갔다고 한 것에서 지금은 할머니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나'의 엄마와 외삼촌이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타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나'는 철물점 할머니에게서 한성 설비 얘기를 듣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쓰더라도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뚫기로 마음먹는다.

06 (다)에서 '나'가 한성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성 설비에는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7 외숙모도 혼자 버티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외삼촌 없이 혼자 있는 외숙모에 대한 '나'의 배려심과 어른스러움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집에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고 화장실 세면대도 막혔으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② 혼자 있는 외숙모를 만나러 가서 남은 김치찌개도 싸 오는 것으로 보아 외숙모와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엄마와 외삼촌이 광주에 간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외숙모도 광주에 가야 하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혼자 버티고 있다는 것에서 외숙모 역시 외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집에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나'와 동생이 외숙모 집에서 반찬을 얻어 먹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8 **서술형** '나'는 세면대가 막히자 만난 철물점 할머니에게 가서 세면대를 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이에 할머니는 한성 설비에 가면 세면대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있다.

09 '나'는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동네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자신이 직접 고치려고 마음먹는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는 세면대를 고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멍키 스패너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고, 이를 빌려와 직접 세면대를 고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차비를 아끼려고 걸은 점, 막상 돈을 쓰려고 해도 아까워서 망설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대한 동영상은 찾아보다 도구, 즉 멍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전거 가게에서 본 것을 기억해 냈다.

④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스무 개쯤 찾아보고, 세면대를 고치는 방법을 머릿속에 다 외울 정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서 빌려 온 멍키 스패너를 가지고 동영상에서 봤던 방법으로 침착하게 세면대를 고치고 있다.

10 (다)에서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멍키 스패너임을 알 수 있고, (라)로 보아 멍키 스패너를 이용해 배수관의 너트를 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라)에서 나는 배수관이 떨어지면서 그 끝에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 덩어리를 '오래된 뉘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세면대를 직접 고치기로 마음먹고 멍키 스패너를 빌려 하는데, 멍키 스패너가 생각보다 조금 무겁자 마치 자신이 세면대를 고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다.

13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④는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직접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14 '나'는 아빠와 하루를 함께 보내며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또한 '끝'에서 아빠가 탑차를 끌고 배달하는 모습을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과 표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이 적절하다.

15 ㉠은 택배원인 아빠와 물건을 받는 사람의 통화 내용이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배달하겠다는 아빠의 말에서 아빠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16 아빠가 하는 일은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 자동차인 탑차를 타고(㉠) 운송인이 화물의 주인에게 물건과 함께 보내는 통지서인 운송장을 바탕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다.

오답풀이 ㉢은 동생들이 기다리는 대상이고, ㉡은 동생들이 산타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므로 아빠가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2 다채로운 단어



단어의 짜임과 새말

간단+복습문제

19쪽

- 꼭지 시험** 01 형태소 02 단어 03 단일어 04 ㉠ 05 ㉡
06 ㉢ 07 ㉣ 08 어근, 어근 09 합성어, 파생어
10 새말
- 어휘 시험** 01 단위, 단위 02 순화 03 파생 04 ㉤
05 ㉥ 06 ㉦ 07 ㉧ 08 황소바람 09 롤 모델 10
그림말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0~21쪽

- 01 ㉢ 02 ㉤ 03 ㉣ 04 ㉡ 05 • 합성어: ㉠, ㉣, ㉤ /
• 파생어: ㉢, ㉤, ㉥ 06 ㉤ 07 ㉡ 08 ㉢ 09 ㉤
10 ㉠

- 01 ㉢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02 '앉았다'는 '앉-+-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어간 '앉-'에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형태소는 3개이다.
- 오답 풀이** ① '손바닥'은 '손+바닥'의 구성으로 형태소가 2개이다.
② '지우개'는 '지우-+-개'의 구성으로 형태소가 2개이다.
③ '애호박'은 '애-+호박'의 구성으로 형태소가 2개이다.
④ '떠들다'는 '떠들-+-다'의 구성으로 형태소가 2개이다.
- 03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이때 조사는 단어이므로 따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감나무', '책가방', '물안개'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04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가을 / 바람 / 이 / 차- / -다'의 5개이다. 자립 형태소는 '가을, 바람'의 2개이며, 의존 형태소는 '이, 차-, -다'로 3개이다. 실질 형태소는 '가을, 바람, 차-'의 3개이고, 형식 형태소는 '이, -다'로 2개이다.
- 05 **서술형**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 06 ㉡ '검붉다'는 '검다'와 '붉다'가 연결 어미 '-고'가 생략된 채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높푸르다' 역시 '높다'와 '붉다'가 연결 어미 '-고'가 생략된 채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 '금도끼'와 ㉣ '눈사람'은 각각 '금+도끼'와 '눈+사람'의 구성으로 된 단어이다. 즉,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② ㉢ '한여름'은 '한-+여름'의 짜임이고, ㉡ '잔주름'은 '잔-+주름'의 짜임이므로 '접사+어근'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③ ㉢의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에 쓰인 '잔-'이다.
- ④ ㉤에 쓰인 접미사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결눈질'과 '손가락질'에 쓰인 '-질'은 <신체 부위 따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07 ㉢의 '햇-'은 '당해에 난'이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접두사로, '햇밤'은 '당해에 새로 난 밤'이라는 의미이다. '햇-'이 '얼마 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햇병아리'와 같은 단어에 쓰일 때이다.
- 08 영어인 '스크린 도어'를 또 다른 영어인 '글래스 게이트'로 바꾸더라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스크린 도어'의 역할로 보아 '차단문'이나 '안전문'으로 다듬는 것이 의미를 전하기에 적절하다. 스크린 도어는 국립 국어원에서 '안전문'으로 다듬었다.
- 09 3문단에서 재미 위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 쓰는 새말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무작정 새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10 ㉠은 합성어나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그림말은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②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이다.
③ '자연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에서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이다.
④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에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⑤ '올로(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이며 '올로족'은 여기에 '족(族)'을 다시 붙여 만든 말이다. 뜻은 현재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3쪽

- 1단계** 01 단어
- 02 ㉠ 복합어, ㉢ 합성어, ㉤ 파생어
- 2단계** 03 '차-'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르면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르면 실질 형태소이다.
- 04 복합어는 '밤나무', '쇠도끼', '한겨울'인데, '밤나무'와 '쇠도끼'는 합성어이고 '한겨울'은 파생어이다.

3단계 05 ㉠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것으로, ㉠의 예에는 '자만추'가 있다. ㉡은 단어의 일부를 결합한 것으로, ㉡의 예에는 '네티켓'이 있다.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로, ㉢의 예에는 '채팅방'이 있다. ㉣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로, ㉣의 예에는 '누리꾼'이 있다.

06 본보기. '본보기'는 어근 '본'과 '보기'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롤 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뜻한다. '본보기'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뜻하므로 '롤 모델'을 '본보기'로 다듬어 쓸 수 있다.

1단계

01 <보기>는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02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 즉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일어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나뉜다. 복합어는 다시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나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나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2단계

03 형태소 '차-'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라는 뜻을 갖는 실질 형태소이자,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04 '바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일어이다. '밤나무(밤+나무)'와 '쇠도끼(쇠+도끼)'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한겨울(한-+겨울)'은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3단계

05 새말은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인 합성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거나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평가 목표	새말의 형성 방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의 형성 방법을 올바르게 쓰고,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 이상 쓴 경우 [20점]
	✓ ㉠~㉣의 형성 방법만 쓴 경우 [10점]
	✓ ㉠~㉣에 해당하는 예만 쓴 경우 [10점]

06 '롤 모델(role model)'과 '본보기'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으나 본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어울리는 다듬은 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목표	외국에서 가져온 새말 다듬기
채점 기준	✓ 다듬은 말의 우리말 짜임을 쓰고 뜻을 비교하여 쓴 경우 [20점]
	✓ 다듬은 말의 우리말 짜임만 쓴 경우 [15점]
	✓ 다듬은 말이 너무 긴 경우 [-5점]
	✓ 새말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5점]

2 어휘의 양상과 쓰임

간단+복습문제

24쪽

꼭지 시험 01 세대 02 어휘 03 전문어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단절 02 줄임말 03 의성어, 의태어 04 ㉢
05 ㉠ 06 ㉢ 07 ㉡ 08 강녕 09 도약 10 추종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5~26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①
08 ③ 09 ①

01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국룰(국민 룰, 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모두 줄임말이다.

오답 풀이 ②, ③ 한자에 기초한 말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은 주로 기성세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④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볼매', '알잘딱깔센', '국룰' 등은 신조어에 해당한다.

⑤ 새말에는 고유어와 외래어, 외국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고유어보다 더 좋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세대별 어휘에는 각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 있으므로, 서로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3 '무료(無聊)하다'는 형용사로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라는 뜻이다. '무료(無料)'는 명사로 '1. 요금이 없음. 2. 급료가 없음.'의 뜻이다. 두 단어는 한자도 다르고 품사도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04 뉴스에서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새말은 우리말의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05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이므로, 하나의 어휘가 담고 있는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고유어보다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06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한다. 은어는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어 외부에 알려지면 새로운 은어로 변경되는 특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쇼트 프로그램', '트리플 점프', '스파이럴', '살코 점프'와 같은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기술 용어가 쓰이고 있다.

② (나)에는 '최후 변론', '손해', '피고', '원고' 등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다.

③ (다)에는 '싱크페이션', '알라 브레베', '레기토', '세노' 등 음악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다.

④ (가)~(다)에 쓰인 용어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말을 전문어라고 한다.

- 07 '연주'는 피아노 연주, 기타 연주처럼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증명'에는 『법률』 분야가 표시된 뜻풀이가 있다.
③, ⑤의 '살코 점프'와 '쇼트 프로그램'의 뜻풀이 앞에는 『체육』 분야라고 표시되어 있다.
④ '싱커페이션'의 뜻풀이 앞에는 『음악』이라는 분야가 표시되어 있다. '싱커페이션'은 한 마디 안에서 센박과 여린박의 규칙성이 뒤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 08 윤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마치 친구에게 말을 하듯이 글을 쓰고 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난 것이므로 하준이처럼 예의를 지켜 공적인 언어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 09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또한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으며, 사적인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휘는 전문어이다.
㉡ 인터넷 언어는 재미나 효율성을 위해 일부러 맞춤법에 맞춰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7쪽

1단계 01 세대 02 전문어

2단계 03 청소년층은 '엄빠'와 같은 줄임말과 '잇템'과 같은 신조어를 많이 사용한다.

04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단계 05 노년층은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자주 사용하므로 한자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층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청소년층은 줄임말과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자주 접하지 못한 노년층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

06 일반인은 전문어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자신이 모르는 말은 쉽게 물어 달라고 전문가에게 요청한다. 전문가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일반인이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01 어휘는 그 어휘를 사용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사회에 따라 쓰이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 02 전문어는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어휘가 담고 있는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2단계

- 03 '엄빠'는 엄마와 아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잇템'은 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04 인터넷 매체는 문자로 이루어진 언어 외에도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 05 노년층이 사용하는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나,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말 중에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가 목표	세대에 따른 어휘의 양상 탐구하기
채점 기준	✓ 노년층과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을 바탕으로 오해가 생긴 이유를 쓴 경우 [20점]
	✓ 노년층과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만 쓴 경우 [15점]
	✓ 노년층 또는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 06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므로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평가 목표	전문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일반인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을 모두 쓴 경우 [20점]
	✓ 일반인 혹은 전문가 중 한쪽의 입장만 쓴 경우 [15점]
	✓ 답안이 100자를 넘어가는 경우 [-5점]
	✓ 일반인과 전문가 순서를 바꿔 쓴 경우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8~31쪽

- 01 ⑤ 02 • 단어의 개수: 6개 / • 형태소의 개수: 9개 03 ⑤
04 ④ 05 ㉠: 우리, 학교, 책 / ㉡: 는, 에서, 을, 읽-, -었-, -다 / ㉢: 우리, 학교, 책, 읽- / ㉣: 는, 에서, 을, -었-, -다 06 ⑤
07 ② 08 ⑤ 09 ② 10 ⑤ 11 ②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⑤ 18 ⑤ 19 ③ 20 날
씨 왜 이렇게 좋아? 21 ③

- 01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으나 앞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우리말에서 단어로 인정한다.

- 02 **서술형** 단어는 '오늘/도/급식/이/정말/맛있었다'의 6개이고, 형태소는 '오늘/도/급식/이/정말/맛/있-/했-/다'의 9개이다.

- 03 ㉠은 '들다'와 '앓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어로, '들-/어/앓-/았-/다'와 같이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손/바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는 2개이다.
② '병/따-/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는 3개이다.
③ '지우-/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는 2개이다.
④ '떠들-/었-/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는 3개이다.

04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으나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느냐와 같은 자립성의 유무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느냐의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05 **서술형**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우리/는/학교/에서/책/을/읽었다'로 나눌 수 있고, 형태소로 나누면 '우리/는/학교/에서/책/을/읽-/-었-/-다'로 나눌 수 있다.

06 파생어를 구성하는 접사는 어근의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 어근의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한다.

07 ②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눈사람 → 눈+사람.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③ 물방울 → 물+방울.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못사랑 → 못+사랑.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⑤ 사랑꾼 → 사랑+꾼.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08 <보기>는 어근과 어근을 합한 합성어의 예이다. 그러나 ⑤ '잔가시'는 접두사 '잔-'과 어근 '가시'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① '물통'은 어근 '물'과 어근 '통'이 결합된 말이다.
② '눈물'은 어근 '눈'과 어근 '물'이 결합된 말이다.
③ '달무리'는 어근 '달'과 어근 '무리'가 결합된 말이다.
④ '새벽달'은 어근 '새벽'과 어근 '달'이 결합된 말이다.

09 '돌다'는 '오다'와 합하여 '돌아오다', '가다'와 합하여 '돌아가다'와 같은 합성어를 만들 수 있다. '돌다'와 '날다'의 뜻을 볼 때 이 둘을 합하는 것은 어색하며, 이를 합한 '돌날다' 혹은 '돌아날다'와 같은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10 ⑤는 어근 '고집'과 접미사 '-쟁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오답풀이 ① '군말'은 접두사 '군-'과 어근 '말'이 결합된 말이다.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한다.
② '휘감다'는 접두사 '휘-'와 어근 '감다'가 결합된 말이다. '휘-'는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한다.
③ '헛돌다'는 접두사 '헛-'과 어근 '돌-'이 결합된 말이다. '헛-'은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보람 없이' 또는 '잘못'의 뜻을 더한다.
④ '애벌레'는 접두사 '애-'와 어근 '벌레'가 결합된 말이다.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11 ①은 '꽃'과 '잎' 두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고, ②는 '뛰다'와 '놀다'의 두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①만 합성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생어이다.
③ ① '꽃잎'은 어근 '꽃'과 어근 '잎'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고, ② '향기롭다'는 어근 '향기'와 접사 '-롭다'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④ ④은 '차-+숫다'의 구성으로 '접두사+어근'의 짜임이나, ②과 ②은 각각 '향기+ -롭다', '장난+ -꾸러기'의 구성이므로 '어근+접미사'의 짜임이다.

⑤ ④은 '차-+숫다', ⑥은 '뛰-+놀다'의 구성이다.

12 ① '잔물결'은 접사 '잔-'과 어근 '물결'이 결합한 파생어로 접사 '잔-'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의 뜻을 더한다.

오답풀이 ① 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과 어근 '고기'가 결합된 말이다.
③ ③은 어근 '보름'과 어근 '달'이 결합된 말이고, ②은 어근 '건너-'와 어근 '뛰-'가 결합된 말이므로 둘 다 두 개의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④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건너다'와 '뛰다'가 결합된 동사이지만 ⑥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다듬이'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명사이다.
⑤ ⑤ '다듬이질'은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고, '휘날리다'와 '군소리'는 각각 접두사 '휘-'와 '군-'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13 '아침'은 '아침'과 '점심'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로 새로운 단어 형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14 이 뉴스는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어휘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는 점을 다루고 있다. 기자는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5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말들은 언어의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행어가 우리 언어를 다채롭게 만드니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6 (가)에서 밑줄 친 어휘는 체육 분야인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집단의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 인과의 언어적 차별성을 두는 말은 '은어'이다.

17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말로 구체적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대화할 때 그런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수용자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18 (가)는 친구끼리 SNS에서 소통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의사소통의 정확함보다는 간편함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19 '머해'는 재미를 주기 위해 '뽀해'를 의도적으로 잘못 쓴 것으로 (나)의 '재미있게 쓰기'에서 설명하는 예에 해당한다.

20 **서술형** '왜케'는 '왜 이렇게'를 의도적으로 글자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고, '조아'는 '좋아'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다.

21 인터넷 언어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며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

3 삶을 가꾸는 글의 힘



추론하며 읽기

간단+ 복습문제

33쪽

- 꼭지 시험** 01 추론 02 독자 03 능동적 04 넋지 효과
05 캠페인 06 허파 07 유도선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조성하다 02 가미하다 03 유도하다
04 규제 05 미처 06 참여하여 07 ㉠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4~35쪽

- 01 ③ 02 ③ 03 ⑤ 04 '인상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넋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05 ⑤ 06 ④
07 ⑤

- 01 (나)에서 누군가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두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넋지 효과'의 개념과 '넋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 담벼락에 화단을 만든 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작은 아
이디어 하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언
급하고 있다.

④ (가)에서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내용의 호소문이나, 쓰
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빨간 글씨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넋지 효과가 많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
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였다.

- 02 글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떠올리는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
을 활용한 것이다.

- 03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사례로, 이를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 04 **서술형** '인상적'의 사전적 의미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 것.'으
로, 주로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쓴다. 넋지 효과를 인상적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05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
으로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 06 (다)를 통해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역할과, 성인
과 갓난아이의 몸속 지방 세포 중 갈색 지방 세포의 비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인과 갓난아이의 몸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④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대부분 백색 지방이지
만 일부 갈색을 띠는 지방도 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우리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는 유산소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지방의 색이 갈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지방 세포에 미토콘
드리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라)에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것도 갈
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갈색 지방 세포
에는 다량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므로 몸을 차갑게 유지하면 지방 세
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증가할 것이다.

- 07 (마)에서 글쓴이는 갈색 지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춥다고 이불 안에만 웅크려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현상을 언
급한 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을 바탕으
로 한 추론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몸속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지방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지방과 추위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많이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갓난아이들에게는 갈색 지방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
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④ "그렇다면 우리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요?"라고 질문한 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므로 적절하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36쪽

- 1단계** 01 담벼락의 쓰레기 무단 투기
2단계 02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두었다.
3단계 03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
지'임을 밝힘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1단계

- 01 (가)에서는 서울의 어느 한 동네 담벼락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소문이나 경고문 부착, 시시 티
브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2단계

- 02 호소문, 경고문, 시시 티브 설치 등과 같은 감시 도구로는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음으로써 쓰레기를 무단
으로 버리려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3단계

- 03 글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부드러운 메시지’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추론하기
채점 기준	✓ (라)에 드러난 내용 중 글을 쓴 의도를 추측할 만한 요소를 밝혀 적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 의도를 쓴 경우 [25점] ✓ 근거를 밝히지 않고 글을 쓴 의도만 쓴 경우 [15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37쪽

1단계 04 미토콘드리아

2단계 05 몸에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의 비율이 어른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3단계 06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가 연구 결과에 따라 갈색 지방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1단계

- 04 갈색 지방 세포는 다량의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2단계

- 05 몸에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이 성인은 몸속 지방 중 0.1퍼센트도 되지 않지만 갓난아이는 약 5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어른보다 추위를 덜 느낀다.

3단계

- 06 제시된 두 가지 연구 결과는 갈색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추위를 덜 느낀다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가 이 결과를 보고 갈색 지방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 보도록 유도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읽기 중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채점 기준	✓ 연구 결과를 제시한 효과를 밝히고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가 드러나도록 쓴 경우 [20점] ✓ 연구 결과를 제시한 효과만 밝힌 경우 [10점] ✓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만 드러난 경우 [10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2

주장하는 글 쓰기

간단·복습문제

39쪽

쪽지 시험	01 근거	02 생성하기	03 객관적	04 ㉠
05 ㉡	06 ㉢	07 고쳐쓰기	08 전문가	09 개요
10 공감				
어휘 시험	01 허용하다	02 인용하다	03 중시하다	
04 분명하게	05 친숙하게	06 무분별하게	07 내향	
08 맹신	09 유형	10 트집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0~4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1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초고를 작성한 뒤 ‘고쳐쓰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③ 자료를 수집한 뒤 선정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개요에 따라 초고를 작성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02 (나)와 같은 개요 작성하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 ④는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 03 ㉠은 엠비티아이가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 1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 04 서론에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본론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도 서론, 본론과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본론의 내용으로 보아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를 받자는 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서론에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
 ③ ㉠ 뒷부분에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자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다.
 ④ 근거 3으로 보아 엠비티아이 검사가 응답자의 심리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맹신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⑤ 서론에서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검사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글쓴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 05 (다)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답풀이 ① (가)를 통해 성격 유형 검사에는 엠비티아이 외에도 에니어그램이나 디스크 같은 검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엠비티아이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조합하여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논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라)에서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지도 엠비티아이 성격 검사를 성격 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엠비티아이 성격 검사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 06 글쓴이의 주장은 ‘엠비티아이의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이므로, ⑤ 엠비티아이 검사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부제로 적절하다.

- 07 (다)는 글의 본론 단계에 해당하며, ①은 결론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08 접속어는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데, 국어에서는 주로 접속 부사가 이 역할을 한다. 접속어를 넣어 보고 글의 앞뒤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42쪽

1단계 01 엠비티아이

2단계 02 하지만 종종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3단계 03 ①은 성격 특성을 둘로 나누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 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가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1단계

- 01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에 대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이다.

2단계

- 02 (다) 문단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근거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와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내용이므로 근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3단계

- 03 ⑦은 엠비티아이가 ‘중간’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의 신뢰성을 높여 주는 예시이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근거의 적절성 판단하기
채점 기준	✓ ⑦의 요약 내용이 적합하고, 근거를 들어 해당 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쓴 경우 [25점]
	✓ ⑦의 요약 내용이 부적합하지만, 근거를 들어 해당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20점]
	✓ ⑦의 요약 내용은 적합하지만 해당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15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43쪽

1단계 04 평점과 후기

2단계 05 (1)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은 필요하다. (2)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은 없어져야 한다.

3단계 06 (나). 거짓으로 후기를 남기거나 후기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나)의 주장과 연관성이 있어 근거 자료로 적절하다.

1단계

- 04 배달 음식과 관련하여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이다.

2단계

- 05 (가)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알리기 위해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악의적 후기로 압박하는 소비자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드러나 있다.

3단계

- 06 <보기>는 실제 구매 영수증을 인증해야 하는 업체라도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난 기사로, (나)에 활용할 만한 자료이다.

평가 목표	근거의 타당성 평가하기
채점 기준	✓ (나)를 선택하고 <보기>의 내용이 (나)의 주장과 연관성 있음을 밝혀 쓴 경우 [20점]
	✓ (나)를 선택했으나 <보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10점]
	✓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4~47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⑤	09 ①	10 ⑤	11 ④	12 ③

01 (나)에서 넋지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례로 (나)에서는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해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라)에서는 피아노 모양의 계단을 설치해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늘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담벼락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쓰레기가 쌓이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다), (라)를 통해 넋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공익적인 캠페인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넋지 효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넋지 효과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글쓴이가 넋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편안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다고 한 것에서 전력 아끼기 캠페인은 성과가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피아노 계단을 설치한 후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6퍼센트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03 (가)에서는 호소문이나 경고문 부착, 시시 티브이 설치와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처럼 넋지 효과를 이용하여 담벼락에 화단을 조성하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04 (라)는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설계하여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피아노 계단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② '창의적 생각이 불러온 변화'가 가장 적절하다.

0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 호소문, 시시 티브이는 감시 도구로 '천 마디 잔소리'에 해당한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안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은 서로 엇갈린 길이나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경로를 헛갈리지 않고 방향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부산의 도로 곡선 구간에서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고 예방 캠페인이나 경고문, 경찰의 주기적 현장 단속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과속 주행이 가능한 부산의 한 도로에서는 급격하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들로 인한 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과속 문제가 있는 곡선 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 가며 흰색 가로선을 그려 운전자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고 하였다.

06 (라)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엇갈린 길이나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경로를 헛갈리지 않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07 (가)의 첫문장인 '넋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를 통해 (가)에서 언급된 곡선 구간의 과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에 제시된 문장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이 글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도구가 아닌 부드러운 메시지만 넋지 효과를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④는 계단을 뛰면서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 도구에 해당하지만, ⑤는 학생이 발자국 스티커를 보며 계단을 걸어나가도록 스스로 행동을 변화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메시지에 해당한다.

09 이 글의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론에서 제시한 후, 결론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맹신하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라는 뜻이다.

10 주장하는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독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11 (다)에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료와 검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지,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나눈다고 했다.

③ (마)에서 심리학과 교수가 엠비티아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으며,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㉔은 글쓴이의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뒷문단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뿐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매체와 생활

간단+ 복습문제

49쪽

- 꼭지 시험** 01 다수 02 개인 인터넷 방송 03 쌍방향 04 영상 매체 05 인쇄 매체 06 음성 매체 07 뉴 미디어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특성 02 수용 03 제약 04 구독 05 보급 06 소식 07 공유 08 왜곡 09 편집 10 폭력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0~51쪽

-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9 ③

- 01 전통적인 인쇄 매체였던 책이나 신문이 전자책, 인터넷 신문처럼 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등 매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 02 대중매체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기도 하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03 대중매체에 비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생방송일 경우 편집하지 않고 바로 방송을 내보내기도 한다.
- 04 <보기>는 개인 인터넷 방송 중에 제작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도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05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로 보아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컷과 말풍선으로 구성되어 만화 형식의 매체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만화는 인쇄 매체로도 전달되지만 요즘은 웹툰처럼 인터넷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② 주로 그림과 문자와 같은 시각 자료로 되어 있다.
④ 소리와 음성, 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에만 해당한다.
⑤ 만화가 개인 혹은 만화 업체에서 생산한다.
- 06 대중매체는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가 제작한 매체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 07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편집되고 제작되기에 항상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8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매체 자료의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신에게 필요한 매체 자료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매체 자료의 정보가 적절한지, 관점은 공정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매체 자료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09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자극과 폭력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52쪽

- 1단계** 01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
- 2단계** 02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다.
- 3단계** 03 방송국은 전통적인 대중매체 자료의 생산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반면 ㉠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이러한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단계

- 01 (가)에서 대중매체가 정확히 무엇이나는 여학생의 질문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 담당자가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

2단계

- 02 대중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의 매체 자료 생산자와 수용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3단계

- 03 전통적인 대중매체 자료의 생산자인 신문사, 방송사 등은 전문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했다. 그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를 생산하므로 기존 방송국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평가 목표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생산자 측면에서 방송국의 특성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이 나타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쓴 경우 [25점]
	✓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 방법만 쓴 경우 [20점]
	✓ 100자가 넘어갈 경우 [-5점]

12 존중하는 언어생활

간단 복습문제

54쪽

- 꼭지 시험** 01 인격 02 나 전달법 03 악성 04 언어폭력
05 금 06 대화방, 대화방 07 비수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악의적 02 왕따 03 빈번하게 04 대책
05 흠칫 06 생채기 07 중독 08 아리다 09 경각심
10 주섬주섬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5~56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우
울감, 불안감, 심한 스트레스 08 ②

- 0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로 'S#(장면 번호)'와 같은 특별한 용어가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영화나 연극의 대본은 지시문과 대사로 극의 흐름이 진행된다.

②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연극이다.

③ 서술자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은 소설 갈래이다.

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은 수필 갈래이다.

- 02 [S# 63]에서 언어폭력의 가해자인 지아는 선생님에게 혼이 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 03 ㉠은 지아가 선에게 주었던 색연필 두 개가 어디 갔느냐는 물음에 대한 선의 답변일 뿐, 지아를 향한 언어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 04 화가 날 때에는 화가 난 감정에 집중하여 이를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화가 났는지 그 까닭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 05 (나)에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33.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소년 범죄의 5분의 1, 즉 20퍼센트 정도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가해자 역시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폭력이 지속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도 않는다.

③ (가)에서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청소년 대부분이 시청자인지는 알 수 없다.

④ (나)를 통해 청소년의 37.5퍼센트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나 유초등의 사이버 폭력 비율은 어떠한지, 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 06 상대를 직접 찾아가 모욕하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다. 현실 공간에서든 가상 공간에서든 폭력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범죄이다.

- 07 **서술형** (라)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감, 불안감, 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가해자 역시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08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것을 말한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57쪽

1단계 01 왕따, 거짓말하는 애

2단계 02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의미한다.

3단계 03 ㉠은 지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꽃혀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단계

- 01 선은 지아를 '왕따', '거짓말하는 애'라고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지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

2단계

- 02 '비수'나 '유리 파편'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물건이다. 상대에게 말로써 이와 같은 상처를 입힐 수 있기에 (나)에서는 언어폭력을 '비수'와 '유리 파편'에 비유하고 있다.

3단계

- 03 (가)에서 선이 지아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을 폭로한 점, '거짓말하는 애'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점, 왕따를 당할 만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나)에서는 이처럼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비수', '유리 파편'에 빗대고 있다.

평가 목표	언어폭력의 문제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 답을 쓴 경우 [30점]
	✓ '비수' 또는 '유리 파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쓴 경우 [20점]
	✓ 언어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만 쓴 경우 [15점]
	✓ '언어폭력'의 개념만 쓴 경우 [10점]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방송국 06 언어폭력
의 문제점(심각성) 07 ⑤ 08 ② 09 ① 10 ③ 11
⑤ 12 왕따 13 ① 14 ⑤ 15 ③ 16 ④ 17 ④

- 01 (가)는 대중매체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한 반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대중매체로 매체 자료 제작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만,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만들 수 있다.

③, ⑤ (가)는 방송국, 신문사처럼 전문 조직이 주로 생산자가 되지만, (나)는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된다.

- 02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③은 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긍정적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 03 개인 인터넷 방송은 기존 방송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방송을 의도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04 나무별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방송이라면 편집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 05 **서술형** 나무별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방송국에서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6 **서술형** (가)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유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언어폭력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다.

- 07 (가)는 '보안뉴스'라는 출처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신문 기사이고, (나)는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신문 기사로 신문 기사는 표제와 부제, 본문 등 일정한 형식을 지켜야 한다. (나)는 수필로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② (가)와 (나)는 둘 다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둘 다 신문이나 책과 같은 인쇄 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로도 전달될 수 있지만,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와 같은 뉴 미디어로도 전달될 수 있다.

④ 개인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개성적인 문체로 전달하는 것은 수필 장르에 대한 설명이므로 (나)에 대한 설명이다.

- 08 (가)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다루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09 '평 먹고 알 먹는다'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영화 보고 팝콘

먹는다'는 매체의 특성이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영화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대중매체인 영상 매체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②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소통 끝에 반응이 온다'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매체 자료의 정보도 검토 후 수용하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매체 자료를 주의를 기울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므로 적절하다.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가는 매체 자료가 좋아야 오는 댓글이 좋다'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매체 자료가 좋을 경우 수용자가 좋은 댓글로 반응해 준다는 특성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⑤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는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매체 자료가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는 좋은 매체 자료는 수용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10 영화는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하나인 영상 매체로 영상, 자막, 소리, 음성 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영화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며, 이미 생산된 제작물인 영화는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 11 [S# 64]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을 한 상태이지만, [S# 70]에서 금을 밟지 않은 지아가 [S# 1]의 선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자 선이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며 나서고 있다.

- 12 **서술형** '왕따'는 '따돌리는 일,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선은 보라 무리와 친하게 된 지아와 보라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또한 지아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선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왔다.

- 13 선과 지아는 폭력적인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두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투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14 ㉔은 지아가 거짓말을 한다면 포함하는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지아를 나무라는 말이다. 즉, ㉔은 지아를 포함하며 비난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15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감출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16 ④는 상대방을 시끄럽다고 비방하며, 생각이 없다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 17 ④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인 비속어를 오히려 새롭고 놀랍다면 칭찬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지금 비속어를 쓴 거냐!', '비속어라니! 다시 말해 보거라.'처럼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절하다.

실전에 강한

중간 고사 대비 모의고사

63~67쪽

- 01 ④ 02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 배수구가 막혔다.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③ 08 산타 0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①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① 19 ① 20 ④

01 이 글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 '나'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 소설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꾸며 낸 이야기인 소설이지 연극의 대본이 아니다.

② 대화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나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이 글에서는 대화보다는 주인공 '나'의 심리 묘사나 행동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⑤ 공상 과학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02 **서술형** '나'와 동생 한아 둘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불이 나가고 세면대까지 막힌 상황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 철물점 할머니를 찾아간다.

03 ㉠은 '나'가 한성 설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표현이다. '나'는 처음에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한성 설비에 세면대 뚫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하지만 한성 설비 아저씨를 부르려면 비싼 수리비와 출장비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한성 설비에 부탁해 세면대를 뚫는 것을 포기한다.

04 이 글의 '나'는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관련 동영상 찾아보고 명키 스페너를 빌려 직접 세면대를 고친다. 이처럼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봐야겠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05 한아는 세면대를 고치는 동안 '나'의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는 한아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아의 존재가 자신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한아가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하여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주게 된다.

06 '나'가 할머니에게 화장실 전구를 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머지 문제는 화장실 전구를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세면대 뚫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을 다섯 번 이상 보고 결국 직접 세면대를 고치게 된다.

② '나'와 동생 한아의 긴 머리카락이 세면대 배수구를 막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④ '나'가 깨질 수도 있는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주는 것은 동생 한아도 충분히 유리컵에 담긴 주스를 마시는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나'는 명키 스페너를 쥐고 있을 때 힘이 몇 배나 커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신감을 얻게 된다. 결국 스스로 막힌 세면대를 뚫게 해 준 명키 스페너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다.

07 이 글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은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08 **서술형** (마)에서 '나'는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를 인용하여 택배 일에 진심을 다하는 아빠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09 (나)에서 '나'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지 아빠 대신 택배를 배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아빠를 돕는 '나'의 손이 더러웠다는 점과 운송장 200개가 많다는 대화에서 아빠의 일이 고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빠의 일을 돕는 '나'의 착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③ 비에 젖은 운송장을 교복에 넣어 말릴 정도로 아빠를 애듯하게 생각하며 아빠가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택배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빠의 전화 통화를 인용하여 아빠가 물건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0 문장을 더 작은 단위인 어절과 단어로 나눌 수 있고, 단어를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어절 단위로 나누면 '나는 / 학교에 / 간다.'이고, 단어 단위로 나누면 '나 / 는 / 학교 / 에 / 간다.'이다. 이를 다시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나 / 는 / 학교 / 에 / 간- / -다'가 된다.

11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저 / 언덕 / 너머 / 에서 / 연 / 이 / 날- / -았- / -다'가 된다. 이때 의존 형태소는 '에서, 이, 날-, -았-, -다'의 5개이다.

오답풀이 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에서, 이, -았-, -다'의 4개이다.

②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저, 언덕, 너머, 연'의 4개이다.

③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로 '저, 언덕, 너머, 연, 날-'의 5개이다.

⑤ <보기>의 문장은 '저 / 언덕 / 너머 / 에서 / 연 / 이 / 날- / -았- / -다'의 9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12 ㉠ '먹구름'은 접사 '먹-'과 어근 '구름'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때 '먹-'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검은 빛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오답풀이 ① '잔-(접사) + 가지(어근)'으로 짜인 파생어로, 이때 '잔-'은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다리미(어근) + -질(접사)'로 짜인 파생어로, 이때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④ '황소(어근) + 바람(어근)'으로 짜인 합성어이다.

⑤ '뛰다(어근) + 오르다(어근)'으로 짜인 합성어로,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어'가 붙은 것이다.

- 13 '베개'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 '베(다)'와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때 접사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지닌다.

오답풀이 ② '차-'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헛-'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또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⑤ '-죽'은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14 '롤 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반짝상'은 이러한 뜻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보기상' 등과 같은 말로 더듬는 것이 적절하다.

- 15 '자만추'는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새말이다. 하지만 '채팅방'은 어근 '채팅'과 어근 '방'이 결합한 합성어로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 16 청소년 세대가 쓰는 말 중에는 일부러 맞춤법에 맞지 않게 만든 새말도 있으므로 이를 계속 지적한다면 오히려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 17 (가)에 사용된 '사흘간', '별로 없으신지요', '무료하다'는 기성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에 반해 (나)에 사용된 '볼매', '알잘딱깔센', '국룰'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나)의 어른들은 청소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18 특정 집단 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는 은어이다. 전문어는 시대의 변화로 전문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된다.

- 19 '조리 기능사'는 요리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식품 분야의 전문어이다. '시험, 최종, 합격'은 한자어로 인터넷 언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할'은 매우 놀라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이고, '최오'는 '최고'를 강조하여 쓴 말이다. '추카추카'는 '축하축하'를 간편하게 표현한 것이다.

③ '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A'는 '아'라는 감탄사를 영문자와 한글을 섞어서 표현한 것이다. '소오름'은 '소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늘려 쓴 것이다.

⑤ '강'은 '그냥'을 간편하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 20 어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무턱대고 사용하지 말자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또 소통하는 사람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68~72쪽

- 01 ① 02 ① 03 ② 04 ③ 05 ⑤ 06 ③ 07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하자. 08 ③ 09 ⑤ 10 ④ 11 교내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⑤ 20 ③

- 01 이 글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넋지 효과를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주로 나타나는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③ 읽는 이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글은 주로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 갈래이다.

④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글은 연설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이다.

⑤ 글쓴이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꾸며 낸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 02 글을 읽기 전에는 표지에 있는 요소(그림, 글의 전체 제목, 부제 등)나 차례(제목, 소제목, 부제)를 보며 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②~⑤는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들이다.

- 03 이 글은 넋지 효과의 개념과 넋지 효과가 성공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아노 계단의 원리는 이 글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②와 같이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공익 성격을 띤 캠페인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례가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에서는 남미 지도가 그려져 있는 화장지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왜 이런 화장지 케이스가 등장했는지 이유를 설명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에 사용한 '창의적', '큰 성과'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⑤ ⑥은 결국 부드러운 메시지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04 (라)에서는 국제 환경 보호 단체 더블유더블유에프에서 줄어드는 숲을 지키기 위해 벌인 캠페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기존에는 아마존 사진이 아니라 ‘화장지를 아껴 쓰시다.’라는 안내문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05 이 글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넛지 효과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처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6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므로, 글쓴이의 경험을 찾으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결론에서 글쓴이는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과 정식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엠비티아이를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맹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매력적인 도구로 이용하자며 글을 끝맺고 있다.

08 이 글은 관계자를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한 다거나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검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근거로는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검사의 한계를 다루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10 ㉠은 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에니어그램, 디스크, 엠비티아이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 글의 중심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③ ㉢은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검사가 널리 퍼져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⑤ ㉤은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에 쓰인 내용을 인용하여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도 한 사람의 성격을 백퍼센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정식 엠비티아이의 검사도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11 **서술형** 문제 상황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으로 펼쳐야 한다.

12 방송국 관계자의 말에서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를 만들 때에는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는 기획, 제작,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때 연출가, 작가, 기자, 연예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는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이곳, 즉 방송국에서 매체 자료를 만든다는 말을 통해 방송국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임을, 시청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시청자는 매체 자료의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지만 누구나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소통한다고 볼 수 있다.

14 전통적인 대중매체로는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 소리와 음성을 이용해 전달하는 음성 매체,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모두 이용하는 영상 매체가 있다. 책은 이 중에서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 속한다.

15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보며 생산자가 어떤 의도와 관점으로 방송을 하는지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있다.

16 매체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영향력에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사회의 문화나 가치를 전수한다는 점,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④와 같이 뉴스 보도의 영향으로 법이 개선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17 보라는 선에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라며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한편, “재 좀 이상한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와 같은 험담으로 선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말이 상대의 문제점을 충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언어폭력은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대화 방식으로 이러한 대화 방식이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19 ㉠은 상대방을 공격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표현을 말한다. ㉡~㉤은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비수 같은 말이다.

20 서로 존중하는 언어생활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 예절을 돌아보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남을 홍보거나 놀리지 않아야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